

1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맞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두 사람은 경제·이민·낙태·외교 등 국내외 현안마다 정면충돌했고,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로 부르며 대립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당선 땀 경기침체” “지금 인플레 최악, 달걀도 못사”

(해리스)

(트럼프)

11월 미국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TV토론에서 경제·이민·낙태 등 주요 현안마다 정면충돌했다.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물가를 놓고 둘은 예열 과정 없이 곧장 설전을 벌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100년 만의 최악의 공중보건 전염병” 등을 남겼으며 “우리가 한 일은 트럼프가 어질러놓은 것을 치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트럼프 소비세’ 부과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는 역만장자를 위한 감세 비용을 중산층이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정책과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는 “판매세” 계획은 없

다며 “해리스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알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75년 만에 결국 우리가 세계를 위해 한 모든 일을 갚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며 관세 공약을 부각했다. 이어 “우리는 최악의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시리얼이나 베이컨, 달걀 등 어떤 것도 살 수 없다”고 맞받았다.

해리스가 “(트럼프가 졸업한) 와튼스쿨에서는 트럼프의 계획이 재정적자를 폭증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꼬집자, 트럼프는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다. 아버지(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수였고, 그녀를 가르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설전이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낙태

두 후보 현안마다 충돌

해리스 “트럼프, 낙태금지 시행할 것”
트럼프 “주정부 권한, 난 서명 안해”

트럼프 “불법이민 수백만 범죄자”
해리스 “난 검사 때 국경범죄 기소”

권이었다. 트럼프는 일부 주에서 대선 당일 진행될 낙태권 찬반 투표를 두고 “그 투표는 임신 9개월째에도 낙태를 하겠다는 것” “다른 말로 야기를 처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해리스는 “트럼프가 재선하면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응수했고, 이에 트럼프는 “거

짓말이다. 나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주 정부가 맡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비켜갔다.

이민과 국경 안보를 놓고선 트럼프가 공세를 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주민들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 먹고 있다”며 “그들(바이든 행정부)은 수백만 명의 범죄자를 허용했다. 베네수엘라와 전 세계 범죄가 감소하는 대신 이 나라의 범죄는 지붕을 뚫고 있다”고 공격했다.

해리스는 “저는 (검사 시절) 국경범죄 조직을 기소한 사람”이라면서 “상원에서 저도 지지하는 국경 강화 법안이 나왔는데 트럼프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폐기하라고 했다. 문제를 풀기보단 문제를 일으키는 쪽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외교 현안 중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해법과 관련해 해리스는 “이스라엘엔 자위권이 있다”면서도 “무고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있다. 휴전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였다면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해리스는 이스라엘을 싫어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해리스는 “저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해리스는 왜 3년 반 동안 이 모든 멋진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서유진 기자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좋은 토론을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10일 대선후보 토론이 열린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 내 스튜디오. 무대에 들어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순간 당황한 듯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내 오른손을 내밀며 악수에 응했다. 토론 초반은 비교적 침착한 톤을 유지한 트럼프가 페이스를 주

도하는 듯했다. 경제와 이민, 낙태 문제 등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발언할 때 해리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간혹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가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라며 비판하자 해리스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 손을 턱에 괴고 고

악수로 시작... ‘94분 설전’ 끝나자 등 돌려

토론 분위기 어땠나

트럼프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
해리스 등더니 턱 괴고 절레절레

개를 뒤로 젖히기도 했다. 트럼프가 발언할 때 해리스는 3m 사이의 트럼프 옆모습을 쳐다보며 황당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트럼프는 시종 해리스에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트럼프가 발언하는 모습을 보인 때는 해리스가 “세계 지도자들은 트럼프

를 비웃고 있다”며 화를 돋우는 장면에서였다.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전 세계를 돌았는데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비웃고 군 지도자들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당신이 수치스럽다고 말한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트럼프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속사포 같은 답변이 쏟아져 나왔다. 악수와 함께 토론을 시작한 두 사람은 94분의 토론이 끝난 뒤에는 악수 없이 등을 돌렸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워싱턴 날씨 (°F)

13일(금)	83-65	16일(월)	80-68
14일(토)	83-65	17일(화)	75-72
15일(일)	82-67	18일(수)	82-72

9월 12일(목) 82~6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저렴 가격/분양/최강 리모...
SOLD

K 로펌 곽태우 변호사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을 도왔습니다.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K 로펌 K LAW FIRM PLLC
www.alexkwakesq.com

703.712.7151
571.405.6540

7799 Leesburg Pike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alexkwakesq@gmail.com

버지니아 트럼프 돌풍, “잠잠해졌나?”

버지니아의 대선 여론조사에서 울들어 처음으로 양당 후보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모닝 컨설트가 최근 투표 의사를 밝힌 버지니아 유권자 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민주)이 52%를 얻어, 42%에 그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을 10%포인트 앞섰다. 두 후보 격차는 레아노크 대학의 8월 조사(47%대44%)와 5월 조사(42%대42%)보다 훨씬 크게 벌어졌다.

무당파 유권자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8% 포인트 우세를 보였다. 이같은 격차는 2020년 대선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54% 대 44% 결과와 매우 흡사하다. 워싱턴포스트-조지메이슨 대학이 10일(화) 발표한 공동여론조사에서도 50%대42%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VA 해리스-트럼프 격차 벌어져 모닝 컨설트, 10%포인트 차이



래리 사바토 버지니아 대학 교수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버지니아는 지난 2008년 대선 이후 5회 연속 민주당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더이상 스윙스테이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버지니아를 경합주에서 삭제할 때가

왔다고 전했다. 최근 공화당 역시 버지니아를 미네소타, 뉴 햄프셔, 뉴 멕시코 등과 함께 우선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지니아 공화당 대선캠프는 “우리가 접한 밀바다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결과”라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버지니아 민주당 대선캠프는 “버지니아 전역에 25개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모두 132명을 상주시키고 있는데, 여론조사와 다른 밀바다 정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모닝 컨설트의 전국조사에서도 49%대46%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판세예측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욱재 기자

VA 온라인 마약 배달 조직 적발

알렉산드리아 거점으로 삼고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서비스

북버지니아 일대에서 온라인을 통해 마리화나를 매매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시티 경찰국에 따르면, 범죄 일당은 온라인 마리화나 배달 플랫폼 사이트 풀업딜러버리스닷컴을 통해 각종 마리화나 제품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배달해왔다.

이번에 검거된 범죄 조직은 매일 평균 배달건수가 30여건, 평균 픽업 오퍼 건수가 20여건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시티의 듀크 스트리트 선상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거점 삼아 배달과 픽업서비스를 해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단속을 통해 범죄자들을 유인해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10일(화) 일당을 체포했다.

이들은 종류 퍼플 가솔린, 크림

소다 등 최근 유행하는 마리화나 제품도 유통해 왔다. 또한 마리화나 환각성분인 THC만을 추출해 제조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와 THC가 함유된 나초 치즈 도리토스 스낵 등도 판매했다.

당국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용의자의 거처를 압수 수색한 결과 불법 무기,총탄, 다량의 마리화나, 지폐, 저울, 각종 전자장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는 지난 2021년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법률을 성사시켰으나 하부 법률을 만들지 않아 의료용 마리화나 제외한 모든 마리화나 거래가 불법이다. 현재 마리화나 소매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성사 직전 단계까지 왔으나, 아직도 정치적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당국에서는 현 단계로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주정부 승인을 얻은 마리화나 소매판매국에서 구입한 제품만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욱재 기자

자살방지 988 서비스 ‘업그레이드’

상담 채팅-문자도 서비스 제공 이민자 통역 서비스도 필요



함께 연중무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당국에서는 육성 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같은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이 문제가 된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이용하는 긴급전화 ‘988’이 기존의 육성 통화 서비스 외에도 텍스트 메시지 신고와 일대일 문자채팅 서비스도 추가했다.

988 전화는 지난 2022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 개통한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로, 911 응급신고 시스템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9년 정신건강 핫라인에 세자릿 수 전화번호 988을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권고했으며, 2020년 연방 의회를 통과해 2022

년 시행에 들어갔다. 당국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아직 내놓고 있지 않지만,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88 전화는 버지니아(988va.org), 메릴랜드(health.maryland.gov/bha/Pages/988md), 워싱턴DC(988lifeline.org)에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문자채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워싱턴 지역에서는 영어 외에 스페인어와 중국어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김윤미 기자

“청소부 아저씨에게 전한 통 큰 선물”

고교생들이 돈모아 ‘지프 차’ 선물 VA 제임스 메디슨 고교

버지니아의 한 고교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청소부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화제가 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 소재한 제임스 메디슨 고교 10학년 학생들은 지난 10일(화) 오후 이 학교 청소부 프랜시스 애프라쿠에게 2015년식 지프 랭글러를 선물했다.(사진)

애프라쿠는 학생들과 격의없이 지내며 조언을 하기도 하는 등, 늘 친절한 청소부로 통했다. 그는 운동부 학생 등이 놓고간 물병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등 학생들을 위해 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학생들을 대해 왔는데, 이에 감동한 학생들이 애프라쿠가 꿈꾸던 지프 랭글러 자동



차를 사주기 위해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등을 통해 돈을 모았다. 모금 목표 2만5천달러는 금세 달성해 중고 지프 랭글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애프라쿠는 10년전 아프리카 가나에서 이민 와서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이 화제가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이 이뤄졌다”면서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윤미 기자

재외동포청 ‘웹챗’ 민원상담 시작

인터넷 연결 24시간 서비스

10일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에 따르면 웹챗은 스마트폰 이용 시 필요한 별도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민원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국적자 및 재외동포는 인

터넷만 연결할 수 있으면 웹챗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웹챗 서비스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webcall.g4k.go.kr)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g4k.go.kr)에 접속한 뒤, 로그인 없이 민원상담 문의를 하면 된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02-6747-0404)를 통해 365일, 24시간 5개 국어로 전화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카카오톡, 웹

콜(데이터통화) 서비스도 도입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웹챗 서비스는 말로 하는 상담이 부담스럽거나 간단한 문의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동포분들께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센터는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이민자 납치해 몸값 뜯은 일당 체포

본국 가족에 연락해 돈 요구
피해자 1명 한인업소로 피신



지난해 3월 이민자들을 납치한 용의자들이 한인업소로 피신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모습. [연방 검찰청]

이민자를 납치해 몸값을 받아낸 히스패닉 일당 네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9일 연방 검찰청 거주 중앙 지구는 남가주에 거주하는 미겔 에인절 아빌라(22), 오마르 아빌라 살메론(41), 호세 하이메 가르시아(20), 호세 알프레도 모레노 곤잘레스(21) 등 4명을 납치, 인질극, 불법 이민자 이송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5인조 일당 중 한 명인 가브리엘 미첼 베세라(22)는 현재 도피 중이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지난해 3월 21일 애리조나 쉐들러에서 네 명의 이민자들을 납치해 버뱅크의 식당으로 이송했다.

이어 이들은 납치한 이민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돈을 요구했다. 용의자는 미국과 멕시코의 계좌에 돈을 나눠 송금하려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다음 날 피해자들이 인근 모텔방으로 옮겨졌을

때 피해자 한 명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한인타운의 가게로 도망친 피해자는 다시 용의자와 마주쳐 폭행을 당하고 다시 납치됐다. 이 과정에서 카페로 추정되는 타운 가게의 보안 카메라에 장면이 포착됐다.

인질극을 통해 용의자는 최소 한 명의 피해자 가족에게서 1만1000달러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대로 유죄 판결 시 용의자들은 각각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온라인 뉴스팀

코웨이USA 노조 결성 무산

NLRB 최종 개표 결과 부결
2년 만에 설립 논란 일단락

코웨이USA 노동조합 설립이 무산됐다. 연방정부 독립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10일 코웨이 노조 설립안에 대한 3차 개표를 진행했다. NLRB에 따르면 3차까지의 최종 개표를 합산한 결과 노조 설립 반대는 71표였다. 설립 찬성은 70표다.

현재 1표의 개표가 보류됐지만 사실상 노조 설립은 부결됐다. NLRB 규정상 양측이 동률이 나오면 절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 설립은 불가하다.

코웨이 USA 측 변호수영변호사(반스 앤 톰버그)는 "이번 개표 결과에 대해 양측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NLRB가 투표 결과를 공식 인

증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됐던 코웨이 노조 설립 활동은 약 2년 만에 일단락됐다. 코웨이 USA 김민규 본 부장은 "최종 결과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를 믿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더 나은 회사가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코웨이 노조 추진 과정에서는 각종 논란이 불거졌었다. 노조 설립을 지원해 온 CRRW(California Retail & Restaurant Workers Union)가 결성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NLRB가 재투표를 결정하는 등 과문이 일었다. 또, CRRW의 대표(호세 하난테스)와 재무 담당(알렉산드라 서

등 직원들이 한인타운 내 노동자를 위한 비영리단체 KIWA의 핵심 인사들로 두 단체가 사실상 같은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코웨이 노조원 일부가 지난해 11월 "CRRW 측이 코웨이 노조 대표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원이 회사 측이 아닌 노조 결성 지원 기관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CRRW에 대한 반감은 그만큼 컸다. 본지는 이번 결과를 두고 노조 측 입장을 묻기 위해 코웨이 박은에 코디네이터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CRRW는 한남체인 LA 지점의 노조 결성도 지원했지만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NLRB 개표에서 마켓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열 기자

“입양인 시민권 법안 올해 통과할 가능성”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ACA)은 이민 문제가 아닌, 미국 시민의 권리 회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지를 끌어내려면 커뮤니티에서 힘을 모으고,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사진) 연방하원의원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즉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10일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의원은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이민 문제와 얽혀 여러 논쟁 속에 묻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연방상원"이라며 "지

기자회견에서 입양인 에밀리 워니키는 "생후 3개월 때 입양돼 미국에 왔고,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은 한참 지나 알게 됐다"며 "60년간 미국에 살며 일했고, 세금도 착실히 냈는데 무국적 상태로 베니핏도 받지 못한 채 추방 위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 김은별 기자



지난 6월 1일 한인타운 옥스퍼드 팰레스 호텔에서 열린 KOWIN 퍼시픽 LA에서 주최한 '무국적 입양인국적 찾아주기 세미나'에서 이민(좌) 박사가 법안 상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내주 LA시의회서 양용 추모

사망 139일만... 시의원 전원 참석



LA시의회가 LA경찰국(LAPD) 경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양용 씨(40·사진)를 기리기 위한 추모 시간을 갖는다.

양용 씨의 아버지 양민 씨에 따르면, 오는 17일(화) 오전 11시30분 LA 시청 내 시의회 회의장(340호)에서 모든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씨를 추모할 계획이다. 양씨가 사망한 지난 5월2일 이후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추모 시간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민 씨는 추모 시간에 앞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시의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정신 질환을 앓던 양용 씨는 가족이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가 현장에 출동

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검시국의 부검 요약본만 공개되었을 뿐,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LA시의회의 추모 시간은 최근 양민 씨가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LA시의원과의 만나면서 마련됐다. 양민 씨는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이 2020년 친구의 아들이 LA카운티셰리프국 요원에게 총을 맞아 숨졌다고 전해주었으며,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해주었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공포의 바람 뉴욕하늘 뒤덮던 그 해 9월 11일

사건 당일 남쪽타워 79층 근무 생존자 김 모씨 언론 첫 인터뷰

▶ 1면 '9·11 테러 23주기'에서 이어집니다
 뉴욕 스카스데일 집에서 오전 7시30분쯤 출발해 8시40분쯤 남쪽 타워 79층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무실 데스크 정리를 하고, 늘 그랬듯 화장을 고치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오전 8시 46분, 아메리칸항공 11편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센터 북쪽 타워를 향해 돌진했다.

▶ 화장을 고치고 나와보니

화장을 고치고 나와보니 평소와 달리 라운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순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 씨에게는 제법 익숙한 냄새였다. 1993년 월드 트레이드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당시 비슷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도로 나와보니 이미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남자 행원들이 그를 향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급히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 물 끼얹듯 조용해졌다

79층에서 53층까지, 20층 넘게 걸어 내려오는 동안 김 씨는 정확히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알지 못했다. "비행기가 사고로 북쪽 타워를 쳤다."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맑은 날 비행기 사고가 났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23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테러범들의 공격으로 무너진 세계 무역 센터에 한인들이 있었다. 한인 20명의 얼굴이 담긴 액자는 911 메모리얼 & 뮤지엄의 한 벽에 영구 전시되고 있다. [911 메모리얼&뮤지엄]

당시 사고 현장은 소통을 위해 층마다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뒀고, 오피스 스피커에서 조그맣게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와글와글한 사람들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다들 조용!", 아래층에 있던 한 남성의 고함에 현장은 일순간 물 끼얹듯 조용해졌다.

▶ 분명 '세이프존'이라고 했는데

"남쪽 타워는 '세이프존'입니다." 스피커에서는 '세이프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됐다. 북쪽 타워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하니, 남쪽 타워에 있는 이들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들렸다. 도저히 다시 걸어 올라갈 수 없었던 김 씨는 52층 계단 벽에 몸을 기대고 서있었다. 2-3분쯤 지났을까. 짜이이익! 무언가 빌딩을 쥐고 흔드는 느낌이 들었다.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테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이 흔들리며 먼지와 파편들이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손잡이를 붙잡고 겨우 한 칸씩 내려가고 있는데, 불이 번쩍하며 빌딩 위쪽에 뭐가 부딪혔다. 비명 소리가 들리며 한 남성이 "킵 워킹!"이라고 소리쳤다. 그때부터 예비구환이었다.

▶ 사방이 시꺼먼 재로 덮여

드디어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3층까지 내려온 김 씨의 귀에 "지하 1층에 도착하면 북쪽으로 뛰어!"라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 1층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직감했다. 엄청나게 큰 일이 터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1m 간격을 두고 양쪽으로 줄을 서 있었는데, 이를 통제하는 경찰들 표정이 엄청나게 심각했다. 하이힐과 휴지 등 물건이 사방에 널려있었고, 대낮인데도 온 세상이 시꺼먼 재로 뒤덮여 암흑같았다. 정신없이 강가 쪽으로 향하던 그는 순간 뒤를 돌

아봤다. 북쪽 타워에서는 90층 즈음에서, 남쪽 타워에서는 김 씨가 다니던 은행이 위치한 70~80층 즈음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처참한 광경을 뒤로하고 전철역에 도착했다. 다행히 열차가 바로 왔다. 김 씨는 "천운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시간에, 월드 트레이드센터는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죽으러 올라가던 젊은 소방관

오전 11시,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후유증 때문에 아파트마저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문 열기도 힘들었다. 그날 김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살기 위해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올 때, 무거운 도끼를 들고 죽음을 향해 계단을 오르던 소방대원들의 얼굴이 눈에 밟혔다. 그는 특히 "내 목숨을 구해 준 옛날 소방대원을 잊을 수 없다"고 전

했다. 계단을 내려오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았는데, 무거운 소방호스를 맨 소방대원이 그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곧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내려가라"고 등을 밀어줬다. 곧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날이 창창한 소방대원은 계속해서 계단을 올랐다. 김 씨는 "그 뒷모습이 지금까지도 마음 아프다"고 토로했다.

김 씨가 근무했던 후지뱅크는 이날 23명의 직원을 잃었다. 그는 "은행 보스들과 시큐리티들은 회사 기밀이 유출될까봐 자리를 지키다가 모조리 희생됐다"고 말했다.

살아나오지 못한 동료들,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어린 소방관을 기억하기 위해서일까. 사건을 겪은 많은 이들이 뉴욕을 떠났지만, "아직도 스카스데일 그 집에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윤지혜 기자

대형은행 자본금 상향, 19%→9%로 큰폭 완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한 은행 규제당국이 은행권 자본 규제 강화 방안을 당초 제안보다 대폭 완화해 적용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9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JP 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8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자

본금 요건을 종전 대비 9% 상향 조정하는 규제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10일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경 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같은 자본금 요건 강화안은 규제당국이 앞서 예고한 규제안에 비해서 대폭 후퇴한 수준이라고 매체는 소개했다.

앞서 연준 등은 지난해 실리컨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

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하는 규제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은행권은 규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전을 펼쳐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규제안 후퇴를 통해 은행권과의 긴 법정 싸움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한편 초안 대비 큰 폭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의 은행 자본규제 강화안은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금값, 내년 2700불"

네덜란드 최대 금융그룹 ING는 금값이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더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ING의 에바 멘치 원자재 전략가는 9일 보고서에서 "4분기 금값은 평균 258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연간 평균은 2388달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 선물가격은 현재 트로이온스당 2530~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들어 20% 넘게 오르면서 주요 원자재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멘치 전략가는 "11월 대선 역시 연말까지 계속 금값 상승 모멘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등도 금값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금값 상승 모멘텀은 내년까지 지속돼 평균 가격은 27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멘치 전략가는 금과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요도 다시 활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투자 · 상업투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숏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제임스 박 부동산

FAIRFAX TOWN HOME \$705,000 GOOD CONDITION 방 3/화장실 2+2/ 차고1	CENTREVILLE TOWN HOME \$560,000 GOOD CONDITION 방 3/화장실 2.5/ 차고 1	FAIRFAX TOWN HOME \$690,000 GOOD CONDITION 방 3/화장실 2.5/차고1 OAKTON HS
SPRINGFIELD SHINGL HOME FORECLOSURE \$680,000 GOOD CONDITION 방 4/화장실 2.5	MANASSAS SINGLE HOME 숏세일!! \$780,000 시세 85만 GOOD CONDITION 방 4/화장실 3.5/차고 2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james2424500@yahoo.com
571.242.4500 제임스 박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er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670; MD 25016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670; PA 108823; FL ML2525; SC 25016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670

암초 만난 이란 핵합의 복원

'러에 미사일 제공' 충돌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복원이 암초를 만났다.

이란 정부는 온건과 마수드 페제 시키안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서방과 핵합의 복원을 모색했으나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란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이란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과 영국이 탄도미사일 제공을 이유로 제재를 언급한 시점이 공교롭게 이란 외무부가 '핵합의 부활'을 언급한 바로 다음날이라는 점에서 핵합의 복원을 위한 서방과 이란의 협상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제재를 결정한 서방 4개국은 국가는 모두 핵합의 서명국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매체가 7일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백발을 인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틀 뒤 이란 외무부는 압바스 아라키 외무장관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핵합의 부활을 위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이달 유엔 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틀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과 우크라이나 동반 방문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군 수십명이 이란에서 파타흐-360 근거리 탄도미사일 훈련을 하고 러시아는 현재 이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거듭 유럽과의 관계 회복과 제재 완화를 바란다고 한다"며 "이같이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탄도미사일 등 무기·군사지원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회사 6곳, 선박 4척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란항공과 러시아 기반 해운회사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각각 이란과 맺은 양자 항공 서비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냈고,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은 보렐 고위대표 지시에 따라 EU 회원국들에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안을 제시했다.

9·11테러 23주년 추모행사 거행

해리스·트럼프도 참석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인 9·11 테러 23주년 추모식이 11일 뉴욕 맨해튼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와 워싱턴DC 인근의 펜타곤(미 국방부) 등 테러 현장에서 잇따라 열렸다.

이날 추모 행사에는 전날 밤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뉴욕 추모식은 항공기 충돌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WTC)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날 오전 연속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족들은 자기 가족의 이름을 부른 뒤에는 희생자와의 추억과 고인의 생전에 못다 한 얘기를 전해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희생자 호명은 진행 도중 나머지 3차례의 테러 발생 시간과 WTC 건물 붕괴 시간에 맞춰 잠시 중단됐고, 참석자들은 종소리와 함께 재차 묵념했다.

추모식 참석자들은 모두 가슴에 하늘색 추모 리본을 달았다. 유족들은 희



9·11 테러 뉴욕 추모식

생자 이름이 새겨진 명판에 꽃을 꽂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뉴욕 추모식에서는 대선 후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인 JD 뎀스 상원의원과 함께 먼저 도착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던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알카에다가 23년전인 2001년 이날 저지른 9·11 테러는 미국 건국 이후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됐다.

당시 알카에다 테러범 19명은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했다. 오전 8시46분 WTC 북쪽 건물을 시작으로 곧이어

남쪽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했다. 항공기 충돌·추락은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의 미 국방부(펜타곤), 펜실베이니아주 샌크스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뉴욕에서만 2천753명이 사망했고, 펜타곤 건물 충돌로 184명이 숨지는 등 총 2천977명이 희생됐다.

이날 추모식은 그라운드제로뿐 아니라 펜타곤, 샌크스빌에서도 열렸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샌크스빌도 각각 방문한다.

샌크스빌이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는 이번 대선의 최대 경합주로 꼽혀 두 후보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 승리, 미국 등 우방에 달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격퇴를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지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승리 계획"은 대부분 미국의 지원에 달려 있다"며 "다른 파트너(우방)들도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하려는 '승리 계획'이 자국에 힘을 실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외교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방이

지지한다면 러시아에 전쟁 종식을 강요하는 게 더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개최를 추진하는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전에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에 이 계획을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를 동반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을 만났다. 이들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영국, 우크라이

나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번 방문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군사·경제·외교적 자립을 약속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래미 장관은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연간 30억 파운드(약 5조2천억 원)를 쓴다며 6억 파운드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들 장관의 방문은 우크라이나가 끈질기게 요구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해제가 논의될 수 있어 시선을 끈다.

"우체국 배송 지연으로 우편투표 차질 우려"

미국 전역에서 선거 절차를 관리하는 당국자들이 미국의 우편 발송 체계에 문제가 있어 유권자들이 11월 대선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의 선거관리 당국자들을 대표하는 전국주총무장관협회와 전국주선거관리자협



회는 11일 연방 우체국(USPS·한국의 우정사업본부격)에 서한을 보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서한에서 최근 치른 경선을 비롯해 지난 1년간의 선거에서 투표 마감 시한 전에 우체국 소인을 찍은 우편투표가 소관 선거관리사무소에 개표

마감일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소를 제대로 적었는데도 우편투표가 '배송 불가' 처리돼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고 적었다.

이렇게 반송될 경우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해당 유권자의 상태가 '활동하지 않음'(inactive)으로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향후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투표하러 가도 주소지를 증명해야 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8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2.5% ↑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7월 상승률 2.9% 대비해서도 한 달 새 0.4%포인트나 하락하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6%)를 밑돌았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전월과 비교해선 0.2% 상승해 전망치에 부합했다.

주거비가 전월 대비 0.5% 오르며 8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 4.0% 하락하며 8월 CPI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데 기여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 7월 상승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전월 대비해선 0.3% 상승해 7월 상승률(0.2%)보다 더 올랐고, 전문가 예상(0.2%)도 웃돌았다.

근원 물가는 인플레이션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더 주시하는 지표다. 근원 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물가 지표 발표 직후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은 이날 CPI 보고서 발표 후인 오전 9시 15분께 3.65%로 전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대비 5bp(1bp=0.01%포인트) 올랐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 더딘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50bp 금리 인하)을 단행할 것이라 기대도 대폭 후퇴했다.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40 Celebrating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SEP. 12th - SEP. 19th, 2024



Soybean Powder(6.35 OZ X 2 EA)
+ White Noodles(8.8 OZ)

**Cold SoyBean
Noodles Set**
가을 별미 콩국수 세트

~~Reg. \$9.99~~
\$6.99
SET

**VICE
Noodle Bowl**
바이즈 한국 면기
CREAM/MOCHA



~~Reg. \$7.99~~
\$4.49
EA
MEDIUM(180 X 80 MM)

~~Reg. \$9.49~~
\$5.49
EA
LARGE(190 X 70 MM)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미국 CPI 상승률 3년만에 최저... “내주 베이비컷 가능성 85%”

(기준금리 0.25%p 인상)

8월 CPI 상승률 2.5%

근원 CPI도 3.2% 상승, 예상치 부합
오늘 발표 생산자물가지수도 주목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향해 꾸준히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은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 기대를 굳힐 수 있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은 8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2.5~2.6%)에 부합하며, 7월 상승률(2.9%)을 하회하는 수치다. 2021년 2월(1.7%) 이후 가장 낮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2%로 예상치(0.2%)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2% 상

승해 예상치에 부합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다만 근원 CPI는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예상치(0.2%)를 소폭 웃돌았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Fed가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참고할 수 있는 물가지표다. 시장은 이번 수치가 기준금리 인하 폭

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주목해 왔다.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보다 크게 둔화할 경우 ‘빅컷(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 필요성이 대두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Fed가 다음 주 0.25%포인트 인하(베이비컷)에 나설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시장은 12일 발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CPI

발표 이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베이비컷 확률을 85%로 내다봤다. 빅컷을 예상하는 확률은 15%다.

지난 6일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 역시 베이비컷 기대에 힘을 실어 주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2000명 증가해 시장 기대치(16만명)를 밑돌았지만, 실업률이 4.2%로 7월(4.3%)보다 낮아지면서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하면서다. **오효정 기자**

미국 투자 적기는? “트럼프 베팅팬 대선 전, 해리스면 직후”

“미국 대선 전후 주가 패턴을 알면 내년 뉴욕 증시를 가늠할 수 있다.”

켄 피셔(74·사진) 미국 자산운용사 피셔인베스트먼트(FI) 회장이 한 말이다. 디종양플러스 글로벌 매니와 한 화상 인터뷰에서다. FI의 운용자산(AUM)은 2760억 달러(약 370조원), 피셔 회장 개인 자산은 110억 달러(약 14조6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말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어디쯤 가 있을까.”

“현재 미국 뉴욕 증시는 나쁘지 않다. 다만,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올해 11월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다. 대통령선거 전후 데이터를 보면 뉴욕 주가는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그렇다고 패턴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떤 패턴이었나.”

“대선 승자의 소속정당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달랐다. 공화당 후보가 승리

370조원 굴리는 켄 피셔

“과거 미국 대선 전후 데이터 보면 민주당·공화 승리 별로 흐름 달라져 그 패턴 알면 매매 시점 잡기 쉬워”

한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 주가가 좋았다. 반면에 임기 첫해 주가 상승률이 시원찮았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때는 어땠나.”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선거가 치러진 해 주가는 대체로 시원찮았다. 반면에 취임 첫해 주가는 좋았다. 이런 패턴은 민주당 출신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취임한 1933년 이후 계속됐다. 다만, 지미 카터(재임 기간: 1977~81년)가 취임한 해는 예외였다. 그해 S&P500 지수는 전년과 견줘 7.4% 정도 낮았다.”

“선거 해와 취임 연도 주가가 승자가 속한 정당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하다.”



“미 증시 참여자들은 공화당 출신 당선자가 비즈니스 친화적이라고 여긴다. 금융과 비즈니스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취임 이후 기대만큼 규제를 확 풀어주거나 세금을 대폭 깎아주지 않아 투자자들이 실망해서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취임 첫해 주가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출신 당선자는 대기업을 반대하고 규제 친화적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취임 이후 공화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투자자들이 경계를 풀었기 때문이다.”

대선 전후 일정 주가 패턴은 ‘워싱턴의 경직성’ 때문이다. 피셔 회장은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누가 이겨도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어 선거 때 약속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가 크게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은 리스크가 적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100% 그렇다고 말할 순 없다. 안전이란 의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오랜 기간 살펴봤을 때 시장, 주식 시장엔 의외 분점 상황이 좋았다. 주식 시장 참여자들은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

다. 이는 경제 이론 측면에서도 사실인 듯하다.”

“어떤 이론인가.”

“행태주의 금융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싫어한다. 미 정부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발생하는 충격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변화의 기대감보다 크다는 얘기다. 역사적으로 미 정부가 확실성을 키워 두려움을 증폭시켜 온 사실이 작용한 듯하다.”

“이번 대선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을까.”

“민주당 해리스가 이긴다고 보면, 선거 직후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사서 임기 첫해 과거 민주당 출신 대통령 때처럼 강세를 보이면 팔아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 반대로 트럼프가 이긴다고 보고 베팅하면 이익을 볼 시간이 짧다(지금 주식을 산다면, 대선 직후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상승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취임 첫해 주가가 이전 공화당 출신 대통령 시절처럼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강남규 국제경제선임기자**

7일 연속 하락한 삼성전자 주가... 외국인, 한달전부터 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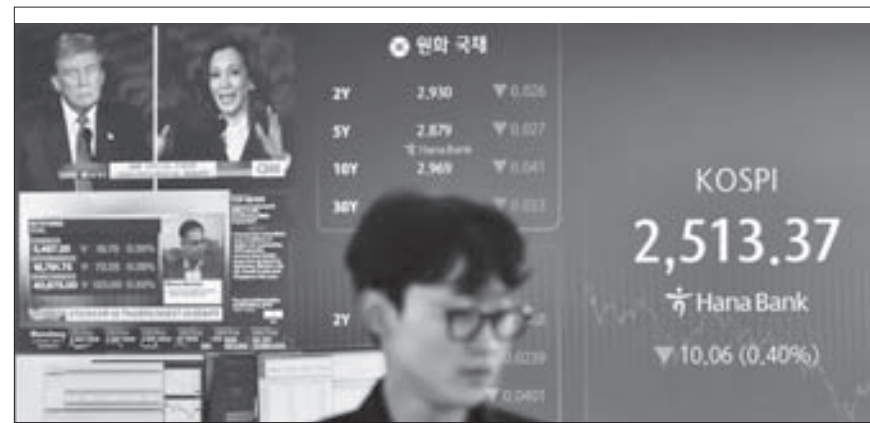
(4조 매도)

삼성전자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주락 중이다. 글로벌 반도체 고점론과 3분기 실적 악화 전망 등 반도체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간 4조원 넘게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1.96% 하락한 6만4900원을 기록했다. 지난 3일부터 7거래일 연속 내리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1.53% 상승했고, 대표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19%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상승 기류를 타지 못했다. 한종희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 등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에 나섰다지만 역부족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부진 우려다. 증권사들은 줄줄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낮추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을 79조3000억원, 영업이익을 10조3000억원으로 추정하며, 시장 평균 전망치보다 각각 5%, 23% 낮을 것으로 봤다. 목표주가



도 기존 12만원에서 20% 내린 9만6000원으로 조정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업체들의 메모리 보유 재고가 13~14주로 늘어나면서 D램, 낸드 모두 전 분기보다 출하량이 줄고 평균판매가격(ASP) 상승률도 한 자릿수로 제

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메리츠증권(10만8000원→9만5000원), KB증권(13만원→9만5000원), 현대차증권(11만원→10만4000원), DB금융투자(11만원→10만원) 등 주요 증권사가 잇따라 삼성전자 목표가를 내려잡았다.

수급 상황도 좋지 않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삼성전자를 1395억원 어치 팔아 치웠다. 지난 8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판 삼성전자 주식은 4조1452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 23일 이후부터는 9월 2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매도세였다.

업계에서는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품질 승인이 늦어지는 점을 외국인 투매 원인으로 꼽는다. 익명을 요청한 반도체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3~4분기에 HBM 관련 매출이 두배씩 늘어날 거라고 가이던스(자체 전망치)를 썼지만, 공식적인 펠(품질) 인증도 나지 않고 있다”며 “펠 승인이 변변히 무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투매에 가까운 매도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기자**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빌딩 3층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한 알에 160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보라보
마이
우메켄 효소환

160가지 발효 성분으로 더 강력해진 우메켄 **NEW** 효소환

36가지 과일 | 27가지 야채 | 68가지 허브 및 해초 | 29가지 곡물과 버섯

새로 출시된 우메켄 NEW 효소환이 특별한 이유는?

우메켄 NEW 효소환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는 몸 속에 효소를 채워주는 생명 보조 식품으로
160가지의 순수한 약초와 과일, 채소, 버섯, 곡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업그레이드된 효소환으로 몸 속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자!

출시 기념

NEW 효소환 구매 시 특별한 선물과 효소환 2주분 무료 증정!

9/30일
까지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
- 몸 컨디션이 저조하신 분
- 숙취가 심하신 분
- 자주 독감, 감기 걸리시는 분
- 혈압이 비정상적인 분
- 과체중이신 분
-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
- 위통이 심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매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 마을(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대기업의 딥테크 투자, K혁신기술 성장 엔진

혁신창업국가 국제심포지엄 2024

서울대·KAIST·중앙일보 공동주최 모한 아이어 대표 ‘벤처캐피털 중요’ 고지 토모타가 회장 ‘일본 94조 투자’



서울대 KAIST,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 2024’가 1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수환 페리저어로스페이스 CFO, 고광표 고바이오랩 대표, 김진영 메티스엑스 대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유홍림 서울대 총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이광형 KAIST 총장, 김복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치원 메디인테크 대표,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김경록 기자

“대학 실험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처음 만들었는데 창업 전부터 선 주문이 들어왔다. 그렇게 얼떨결에 ‘실협실 창업’을 했다. 기술 외에는 포트폴리오도 준비 안 된 상태였다.”

11일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 2024’에서 오준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명예교수는 13년 전 연구실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처음 창업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오 교수는 ‘휴보’의 아버지로 불리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에는 무지했고, 로봇 판매 외 수익을 낼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그때 사업의 밑거름을 그려주며 투자자를 모아온 것이 벤처캐피털(VC)이었다.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확보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창업 10년 만인 2021년 3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상장 후 3년이 지난 현재,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주목을 받는 회사로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이 회사에 867억원을 투자했고 지분 14.99%를 확보했다. 2029년 3월까지 지분율을 60%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는 콜옵션(매수선택권) 계약도 체결했다. 국내 대학 연구진이 연구개발(R&D)한 혁신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졌고, 그 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의 신성장동력 역할까지 하게 된 사례다.

지난달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세계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 한국판을 내며 “한국은 R&D에 국내총생산(GDP) 5% 가까이 투자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연구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와 KAIST, 중앙일보가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와 대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연 이번 심포지엄에선 R&D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지 못하는 ‘R&D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연사로 참석한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 및 VC 임원들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위

부로부터 들어오는 개방형 혁신모델)으로 혁신창업 생태계의 신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 창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선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오른 미국 VC인 SOSV의 모한 아이어 대표 파트너는 “딥테크 분야에서는 CVC가 스타트업의 R&D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시장 확장을 도울 수 있다”며 “VC의 빠른 결정과 CVC의 신중하게 계획된 대규모 실행을 결합함으로써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2020~2022년 3년간 157건 스타트업 인

수합병(M&A)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CVC가 인수한 회사에 선투자했거나 동종 기업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75% 이상이었다. 신세계그룹의 CVC 시그나이트파트너스의 임정민 투자총괄은 “CVC는 투자를 통해 모회사가 타깃하는 시장 정보를 미리 분석해 준다”며 “모회사와 스타트업을 연결해 주는 ‘레이더’ 역할”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기조연설자였던 일본 DG다이와벤처스의 나카지마 주니치 대표, 일본벤처캐피털협회 고지 토모타가 회장은 일본 창업 생태계 상황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투자 확장,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스타트업 투자를 10조 엔(약 94조 원)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고지 회장은 “일본 VC 펀드 규모는 지난해 연설에 나선 모한 아이어 미국 SOSV 대표, 나카지마 주니치 일본 DG다이와벤처스 대표, 고지 토모타가 일본벤처캐피털협회 회장, 오준호 KAIST 명예교수(왼쪽부터).

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대학 출신 딥테크 스타트업 수는 3.5배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그동안 한국은 정부 계획과 규제에 의존하는 ‘패스트 팔로어’ 모델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동시에 위험 부담은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혁신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역량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현재 교수 창업의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휴학 제한을 없애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결과 학교 안에서 1년에 13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대학과 정부 출연연(출연연구기관)에서 태어난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 가운데 기업공개(IPO)에 성공하거나 M&A를 통해 대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는 곳이 적지 않다”며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의 사례에서 아직 미숙한 한국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와 성장 한계에 직면한 우리 대기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딥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CVC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 세션에서는 혁신창업 생태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오갔다. 패널로 참석한 허준영 GS벤처스 대표는 “기술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드는 것보다 연구실에서 나와 어떤 파트너와 함께할지 로드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연구산업협회 등이 후원했다. 홍상지·김민정 기자

지능형 메모리 솔루션·ESS... ‘K딥테크 르네상스’ 이끄는 기업들

(에너지저장시스템) (한 우물만 파고든 기술)

대한민국 혁신창업상 6곳 선정

“인공지능(AI) 기술을 뒷받침할 데이터센터 하나 지을 때마다 (전력 소비가 큰 탓에) 원자력발전소를 하나 더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기술을 쓰면 중앙처리장치(CPU) 열개 할 일을 한 개 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진영 메티스엑스 대표는 11일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 2024’에서 이렇게 말했다. 메티스엑스는 ‘지능형 메모리 솔루션’을 만든 성과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만든 솔

2024 대한민국 혁신창업상 수상 기업			
	회사명	대표	주요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메티스엑스	김진영 김도훈	컴퓨터 엑스프레스 링크(CXL) 기술을 활용한 메모리 솔루션
	스탠다드에너지	김부기	바다를 기반한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KAIST 총장상	고바이오랩	고광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서울대학교 총장상	페리저어로스페이스	신동윤	200kg급 소형 인공위성을 탑재한 소형 우주발사체
중앙홀딩스 회장상	알지노믹스	이성욱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메디인테크	이치원	전동식 내시경과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

루션이다. 이날 메티스엑스를 포함한 6곳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2024 대한민국 혁신창업상’을 수상했다. 업력 7년 이하(신산업 창업은 10년 이하) 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인정받은 곳이다. 메티스엑스와 스탠다드에너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고, 중앙홀딩스 회장은 알지노믹스가 받았다. 페리저

어로스페이스(서울대 총장상)·고바이오랩(KAIST 총장상)·메디인테크(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등도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경환 성공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장은 “한국 혁신창업 기업이 (창업 강국인) 미국과 이스라엘과 비교해 손색없는 성과를 보여 심사위원으로서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리튬 대신 바나듐을 사용한 차세대 배터리와 에너지저장 시스템(ESS)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바나듐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 발생 확률이 크게 낮아 안정성이 뛰어나다. 2018년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학

부생이었던 신동윤 대표가 설립한 페리저어로스페이스는 민간 기업 중 최초로 자체 개발한 우주발사체(블루웨이브)를 국내에서 시범 비행하고 있다.

고바이오랩은 미생물학 전문가인 고광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2014년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을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2020년 국내 증시(코스닥)에 상장했고, 먹는 비만약(GLP-1) 등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성욱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학과 교수가 2017년 창업한 알지노믹스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기업이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단백질인 리보핵산(RNA)을 활용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을 만든다. ‘RNA 치환 효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윤상언 기자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McLean, VA	\$900,000	현재 3년 (\$4,20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18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8003 Fallstaff Rd., McLean	RENTED		10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RENTED	릴리안 콘도, 방 2 화 2, 콘도 유닛, 아주 밝음, 경치 좋음	223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2,800	One Park Crest 콘도	71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17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27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74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2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6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주재원
			41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16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29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10222 Baltusrol Ct, Oakton, VA	3년	주재원
			1536 Northern Neck Dr, Vienna, VA	2년	주재원
			14263 Travilah Rd, Rockville, MD	2년	교민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마감 차 9/24~10/4 마감 차 10/15~10/25
 마감 차 10/22~11/1 (단풍특선)

올가을 마지막!!! 단풍여행

6차 10/29~11/8
 최고급 호텔! 리무진 버스! 모든 옵션 포함!
 10박 11일 / \$2990+항공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특전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 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 고국 7박 (노옵션)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 고국 7박 4차 11/12-11/23 \$3590+항공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일출발 \$899+항공
 4박 5일 동해권 금출발 \$999+항공
 5박 6일 서남+제주 일출발 \$149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일출발 \$2149+항공

3박 4일 동경 \$999+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23~10/3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장) (대장)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대장) 10박 11일 \$29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대장) (대장) 10박 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장) (대장)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대장) 10박 11일 \$2990+항공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대장)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3590+항공
 10/29~11/08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 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 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2/17~2/26 아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두바이 13박 14일 \$11,500+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 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 10일 \$3990+항공

4/14~4/20 봄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 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 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4/28~5/06 정통 동유럽 9박 10일 \$3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5/13~5/23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멜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TMCI 고국 건강 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자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악어농장, 백만년비위공원, 태국특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야만 해양관광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알롱 사원, 코끼리 트랙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데미파크, 호치민명묘, 생할관, 비단광장, 한기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섀피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공작박물관, 자오공, 101빌딩, 라오하계 야시장, 서문경거리, 태로산협곡, 화련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죽문화춘, 아류래양 국립공원, 자우언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윈더스, 헨드스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연원, 차이타운, 센트사, 실로소비티

성극 대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9/19, 10/1, 10/17, 10/29, 11/14, 12/12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미동부 베스트셀러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행버스출발: 9/16, 9/30, 10/07, 10/14, 10/30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3박 4일 \$899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뉴욕 1박 2일 \$399

참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출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가을 단풍 여행

3박 4일 천심/몽뜨랑블랑 몬트리올/퀘벡 \$950
 10/7, 10/14

당일 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159
 10/17, 10/25, 10/26 (단체여행 인양)

2박 3일 스모키 마운틴 \$859
 10/24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천궁-II, 이라크에도 수출한다... 내주 3조5000억 계약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8개 포대 수출협상 마무리 단계 ‘한국산 패트리엇’ 첨단방어체계 사우디·UAE 이어 K방산 또 쾌거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II’(M-SAM2·사진)가 연내 이라크에 수출될 전망이다. 규모는 약 3조5000억원 상당으로,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K방산’이 이뤄낸 또 다른 성과다.

11일 국내 방산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는 천궁-II 8개 포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 주 LIG넥스원과 2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재 수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동 군사 매체 디펜스 아라빅은 지난 9일 타베트 무함마드 알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을 인용해 “한국 대공 방어 체계에 대한 계약이 이르면 다음 주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라크가 지난 3월 사미르 자키 후세인 알

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중장)과 알아바시 국방장관을 한국에 파견해 천궁-II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한다.

“한국산 패트리엇(PAC-3)”으로도 불리는 대공 방어 체계인 천궁-II는 항공기와 지상 등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모두 잡아낼 수 있는 첨단 방어 무기 체계다. 15~20km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하층 방공망의 핵심이다. 마하 4.5(시속 5508km) 속도의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천궁-II는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을 이용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한 뒤 공중 점화하는 ‘월드 론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360도로 방향 전환이 가능

하다. 사격 능력과 고속 비행체 대응 능력, 정밀 유도 조종 성능 등도 보유했다.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레이더(MFR)는 중거리 표적 항공기에 대한 탐지·추적·피악식별 능력과 요격 유도탄의 포착·추적·교전 등 교전 기능을 갖췄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LIG넥스원이 미사일 발사체를 개발했다.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맡아 제작한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 성능은 좋으면서 미국의 대공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천궁-II는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미사일 1발의 가격은 약 15억원으로,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 32억 달러(약 4조 2528억원) 규모의 천궁-II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계약 성사를 발표했다. 앞서 LIG넥스원·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35억 달러(약 4조 1800억) 규모의 천궁-II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우정 기자



윤 대통령 ‘사이버 원팀’ 세리머니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개최식에서 사이버 파트너스 출범 및 원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대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위상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윤 대통령, 볼프강 앙거출처 주한오스트리아 대사. [사진 대통령실]

김건희·해병 특검법...야당, 법사위서 단독처리

우원식 “19일 본회의 처리” 제안 추석 전 처리는 사실상 불발 여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본회의의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이 노렸던 추석 전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순직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

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포함시켰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협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

위 협의, 공청회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요구가 무산됐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라빚을 급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의 입법 속도전은 우의장의 중재안에 막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의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유성운·성지원 기자

금배지 달고 교수직 유지... ‘친명 조선’ 차지호 국회법 허점 노렸나

(카이스트 대학원)

친명계로 꼽히는 조선의 차지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직을 사직하지 않고 휴직 상태에서 의정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 측이 10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차 부교수는 휴직 중”이며 기

간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로 22대 국회 임기와 일치한다. 2013년 8월 개정된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교수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사직해야 한다.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인과 교수의 합성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차 의원의 휴직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법(29조)과 정당법(22조) 등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이 정한 교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 기관 임직원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교

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로 과학기술원법(카이스트법)의 적용을 받는다.

박춘권 의원은 “카이스트의 특성과 교육기관의 족쇄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공공기관 해체 조치(2023)가 영풍하게 카이스트 교수만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11일 “카이스트 측과 법률 검토를 거쳐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지난달 카이스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는 여론에서 “교수직을 유지 중인 상황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카이스트 이외의 단체나 법인이 카이스트의 영문 명칭(KAIST)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국희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 E-mail : lee@jaelaw.com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농산물 특판전

SPECIALS FROM JEONBUK STATE

SEP. 13TH - SEP. 26TH, 2024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H Mart에서 만나보세요!
Experience one-of-a-kind flavors from Jeonbuk State, exclusively at H Mart.

RARA'S FARM
Tofu Konjac Noodles
라라스팜 두부곤약면
SPAGHETTI/
FETTUCCINE
6.34 OZ



\$1.99

EASY TO COOK Dried Noodles
참편한 국수
SPICY (1.24 LB)/
MANILA CLAM (1.21 LB)



\$5.99

Fermented Soybean Paste for Stew
4남매 시골 청국장
5.99 OZ



\$2.99

Fermented Soybean Paste Stew
4남매 청국장찌개
5.64 OZ



\$2.99

DAHAE FOOD
Salted Shrimp
다해식품 새우추젓
2.2 LB



\$9.99

Golden Tongue Sole
사랑●海 황금박대
6.34 OZ



\$4.99

Seomjingang Daseulgi Soup
초록수담 섬진강 다슬기 맑은국
1.1 LB



\$5.99

Spicy Stir-Fried Squid/ (Webfoot/Small) Octopus
최인선셰프의 오징어/낙지/쭈꾸미볶음
8.11 OZ



\$6.99

Joy's Amazing Tteokbokki
어메이징 떡볶이
19.4 OZ



\$5.99

Mozzarella Cheese Bar Rice Cake
모짜렐라 치즈가래떡
8.28 OZ



\$2.99

Brown Rice Snack 사과/양파/올금들어간 현미스낵
ALL VAREITIES
3.17 OZ



\$3.99

Shikhye Rice Punch
온골진식혜 옛날식혜
ORIGINAL/1000 mL PUMPKIN/1000 mL



\$2.99 \$3.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한동훈 “협의체 들어왔다 탈퇴해도 된다” ... 의료계 설득 총력

여권이 여·야·의·정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를 앉히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응급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의료사고면책특례법’을 제정하고, 전공의법을 개정해 일주일에 최장 8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공의 현장 복귀 및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가지급하는 월 100만원의 전공의 수당 상향, 의료계 숙원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신뢰를 회복해 응급실 상황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12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도 이런 방

한, 부산대병원 응급실 찾아 호소 “의료계 일부 참여 땀 협의체 출발” 야당 “올 의대정원도 열린 논의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부산시 금정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 격차 대책 마련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 전반에 걸친 논의가 이어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 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료 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며 “협의체가 다수결로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강제력 있는 식으로 운영되진 않

을 것이다. 들어온 뒤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낸 15개 의사 단체 중 5개기관의 단체가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흥정

하듯이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근거를 갖춘 새로운 답안을 내면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는 않겠다.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정이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와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 요구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했다. 다만 이미 수시 전형에 돌입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불가능하다”는 게 여권 내 중론이다.

그러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도 “집권당 대표와 정부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제한 없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2026학년도 정원 합리적 추계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김기정 기자

62세 궤양출혈 SOS ... 23곳 전화돌려 긴급 이송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상황실 르포 중증·응급환자 이송 ‘최후의 보루’ 수용 가능한 병원에 일일이 연락 한명 이송하려 50곳에 전화도 예사 부산 환자, 헬기로 서울와 응급수술



지난 10일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응급의료 현안 대응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문상혁 기자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응급의료 현안 대응 현황판’엔 응급실 병상 가동률·현황이 표시됐다. 매시 10분에 자동 갱신된다. 옆엔 응급환자 전원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곳은 정부가 갈 곳을 찾는 중증·응급 환자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난 3월 만들었다.

광역상황실은 응급환자 이송 ‘최후의 보루’다. 의료진의 요청에 따른 응급환자 전원을 돕는 게 주 업무지만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 5월

병원 선정 업무도 추가됐다. 119구급대의 이송 협력 요청을 받은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수용 가능한 병원 리스트가 나온다. 그 후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묻고 병원을 선정한다.

상황실 근무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응급환자를 적절한 병원에 배정하는 것이다. 일일 평균 약 38건의 전원 요청이 접수된다. 많을 때는 80건 이상이 쏟아진다. 이날 상황실 근무자 모니터엔 상담 건수 33건이 찍혔다.

오후 6시50분쯤 충북 A병원에서 다급한 요청이 왔다. 62세 십이지장 궤양 출혈 환자인데 지혈에 실패했다고 했다. 상황실 요원은 23곳 병원에 연락을 돌렸다. 환자는 이날 밤 10시쯤 대전의 B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한 응급환자의 전원을 위해 50군데 이상 병원에 전화를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얼마 전 새벽 3시쯤 리튬 건전지를 삼킨 4세 여아의 전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황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상황실에서 12곳 병원에 수용 요청을 보냈고, 53km 떨어진 병원에서 연락이 와 전원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다행히 이송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5일 만에 퇴원했다.

이날 상황실 전광판에는 대부분 녹색 배경의 ‘전원 성공’이 표시됐다. 광역의료상황실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상관없이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응급이송체계의 중추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지난 3월 수도권·경상권·전라권·충청권 4곳에서 지난 7월 2곳을 추가해 6곳 체제로 개편했다. 하지만 인력 상황은 넉넉치 않은 편이다. 3교대 근무에서 한 듀티(근무)당 상황요원(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2~4명과 상황 의사(공중보건의 포함) 1~2명이 근무한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우려했다. 김 센터장은 “전공의 이탈 초기 응급실 이용을 자제했던 경증 환자들이 다시 응급실을 찾고 있다”면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일 2차 병원인 부산 광혜병원에서 대동맥박리(대동맥이 늘어나 혈관 벽이 손상되는 급성질환) 진단을 받은 40대 환자가 소방헬기를 타고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부산 지역 대형병원의 관련 전문가가 모두 수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상혁 기자

“매일 1000명씩 죽었으면” ... 의사 커뮤니티 막말 수사의뢰

국민을 ‘개돼지’ ‘견민’ 칭하기도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국민이 더 죽어도 된다’는 식의 막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물 작성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테프’에 최근 ‘응급실 뺨뺨이’를 비롯한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패륜성 발언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의대생만 인

증을 거쳐 가입이 가능하고,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폐쇄적 구조다. 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국민을 ‘개돼지’ ‘견민’ 등으로 부르면서 비난했다. 특히 “조선인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거나 “생을 마감

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글까지 여럿 올라왔다. 지난 10일 밤부터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 글이 내부 폭로로 유출됐다’는 글과 함께 이리

한 막말을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됐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복지부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환·남수현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구강교육치과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www.naturadent.net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셀프 연임' 제동 걸었다

임기 연장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가 회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돼 내년 1월 3선 출마 사실상 길 열어 문체부 "비상식적 절차" 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스포츠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첫 단추로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산하 체육단체 임원 연임 허용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제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장 자신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이번 시정 조치는 체육단체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심사 대상자이기도 한 체육회장이 갖고 있다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단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회 스

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 수장에 오른 이후 2021년 재선을 거쳐 8년째 재임 중이다. 아직 3선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이 없는 한 내년 1월에 열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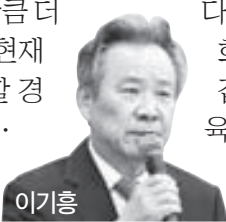
문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지난 2023년 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기흥 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아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 회장이 3선 도전에 나설 경우 자신이 구성한 인사들로부터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사실상 '셀프 연임'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이끄는 김병철 위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직으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 현재 상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심사의 일반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해놓은 임기 연장 심의 기준 또한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에는 임원 연임 제한의 예외 규정으로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의 지표를 제시한다. 이를 계량화해 평가한 뒤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시한 실제 심사 기준은 해당 정관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정관에 따르면 평가의 기준은 정량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성적 평가 비중이 전체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뿐만 아니라 심사 지표의 70%가량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은 요소들로 구성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조치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과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문체부의 동의를 거친 바 있다"면서 "종목단체와 지역체육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임박해 갑자기 관련 규정을 바꾸면 체육계 전체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흥

송지훈 기자



인천상륙작전 74주년 시가행진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이 11일 오후 동인천역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사이 1.4km 구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장갑차 행렬. [뉴스1]

“자녀·손주서 해방” 노년 혼삶족, ‘병세권’ 실버타운 몰린다

고소득층 대상 도심 실버타운 급증 오피스텔·소형 아파트 찾아 살기도 “노인 주거 양극화, 공급 더 늘려야”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 조종천(78)씨는 3년 전 인천시 서구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마저 독립시킨 조씨는 24평 기준 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33만원인 이 실버타운에 입소하려고 1년간 대기했다. 대학병원과 연계돼 원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비도 15% 할인되는 점에 끌렸다. 인근 지하철역(도보 15분)을 통해 서울에 나가 친구도 자주 만난다. 조씨는 “아들 부부가 서울에서 같이 살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가사 부담도 없어 실버타운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거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부모도, 자식도 ‘분리 주거’를 원한다. 맞벌이인 자녀와 함께 살며 눈치 보는 것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한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60~70대가 38.7%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노인 ‘혼삶족’(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실버타운도 증가세다. 2008년 전국에 20곳(5645세대)에서 지난해 40곳(9006세대)으로 늘었다.

최근 실버타운 입지는 대부분 수도권 도심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조사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전국 현황’에 따르면, 40곳 중 28곳이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했다. ‘역세권’(지하철역 근처)이나 ‘병세권’(병원 근처)이 많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지가 좋은 실버타운은 땅값이 비싸서 수지를 맞추려고 경제 여건이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들이 원하는) 체육·여가 등 편의·부대시설을 갖춘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노인 혼삶족도 늘고 있다. 4년 전 서울 노원구의 18평 아파트로 이사한 박모(76)씨는 11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은평구 주택을 팔고 이사했다. 박씨는 “이사와 보니 혼자 사는 또래 노인이 많다”며 “방 하나를 근처 학교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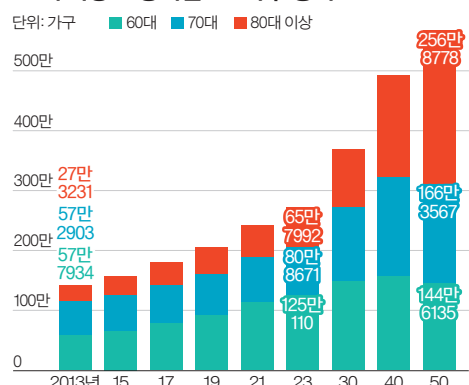
한데 하숙방으로 빌려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반면에 양로원 등 전통적인 노인 복지시설을 찾는 노년층이 줄고 있다. 양로시설은 2008년 306곳에서 지난해 175곳으로 급감했다.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주거는 특히 자산·소득에 따라 양극화한다”며 “중산층 대상 주거복지시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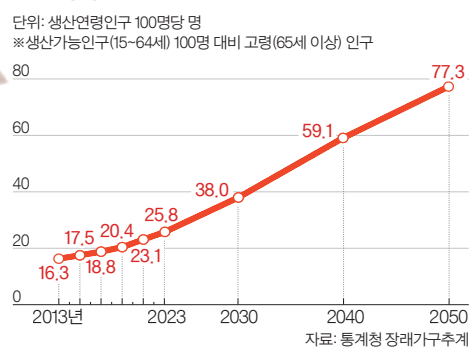
신혜연·김서원 기자

인천시 서구의 한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조종천(78)씨. 김중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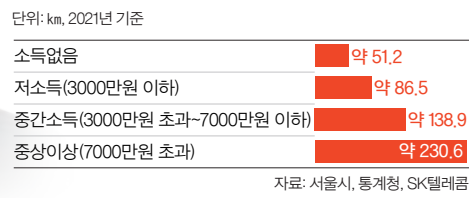
60세 이상 연령대별 1인 가구 증가



노년 부양비



60세 이상 1인 가구 3개월간 휴일 이동거리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우리말 바꾸기

‘선풍’? ‘선풐’?

다음 중 ‘뵤’ ‘뵐’ 표기가 바른 것은?
 ㉠ 좋은 작품 선풐 ㉡ 만나 뵤 반갑습니다
 ㉢ 내일 뵐요
 우선 ㉠을 보자. 여기에서 ‘선풐’은 맞는 말일까? 아마도 맞는 말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다. ‘선풐’이 아니면 ‘선풐’인데 ‘선풐’은 어딘지 모양이 아닌 듯하다.
 ‘선풐’이 ‘선풐, 선풐, 선풐면’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선풐’이 아니라 ‘선풐’이 맞는 것으로 더욱 확신을 갖기 쉽다. 그러나 ‘선풐’은 어간 ‘선풐’로만 끝날 수가 없다. ‘뵐다→뵐어, 예뵐다→예뵐어, 우습다→우스워’에서 보듯 종결어미인 ‘어’를 추가해야 한다. ‘선풐’ 역시 어간인 ‘선풐’에 ‘어’를 덧붙이면 ‘선풐어’가 되고 이것이 줄면 ‘선풐’이 된다. 따라서 ㉠ 좋은 작품 선풐은 ‘좋은 작품 선풐’이 맞는 표현이다.
 ㉡에서 ‘만나 뵐’ 역시 ‘만나 뵐’이 맞는 말이다. 어간인 ‘뵐’이 홀로 쓰이지 못하고 ‘어’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뵐+어→뵐어→뵐어’가 되는 것이다.
 헤어질 때 많이 쓰이는 ‘내일 뵐요’는 맞는 표현으로 정답이다. 이 또한 ‘뵐’에 ‘-요’가 바로 붙지 못하고 ‘어’를 추가해야 한다. 즉 ‘뵐+어+요’ 형태가 되고 ‘뵐어’가 줄어 ‘뵐’이 된다. ‘작품 선풐’ ‘만나 뵐’ ‘내일 뵐’처럼 ‘선풐’이나 ‘뵐’은 어간인 ‘선풐’ ‘뵐’은 말이 끝날 수 없고 반드시 ‘어’가 추가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경제 안테나

고용시장 약화, 필요한 연준의 대응은



손성원
 로울라 메리마운트대 교수
 SS이코노믹스 대표

단기 취업인 직(gig) 이코노미 종사자와 파트타임 근무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였지만 근로자의 재정 안정성은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고용 일자리와 근로자 능력 간의 불일치로 인한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 악화 문제를 초래해 소비 지출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일변도에서 고용시장 안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고용시장 약화로 인한 소비자 지출 감소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9월 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CME FedWatch는 9월에 0.25%p 금리 인하 확률을 55%, 0.5%p 인하 확률은 45%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고용지표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11월 7일 회의에서 0.5%p의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고용시장 약화는 연준으로 하여금 통화 정책 방향을 전환토록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경제가 ‘순차 침체’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소비자 지출 둔화는 상당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잠망경

과거 애착증



서랑
 시안-정신과 의사

이 돼서도 학대를 주고받는 이성 관계를 거듭한다. 급기야 개인적 차원을 떠나 전 인류가 집단으로 나쁜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개인적, 집단적 역사뿐만 아니다. 우주의 운행, 태양계의 형성, 지구의 공전, 약속처럼 찾아오는 4계절, 우리의 말버릇, 정신 상태, 성격과 대인관계 같은 모든 것이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어두운 역사의 반복현상에 반하여 진화론은 어떤가. 모든 것을 신의 섭리에 맡기는 사고방식을 잠시 접어두고, 개인이 획득한 지식, 기술, 타인을 향한 호불호 같은 것들이 대물림하면서까지 진화가 지속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지. 우리의 머나먼 조상 원숭이들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꼬리 길이가 조금씩 짧아졌다는 이론이다. 모든 생명체의 진화과정도 반복의 소산인 것을.
 피아노나 기타를 배우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된다. 매일매일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여 조금씩 조금씩 손놀림이 익숙해지며 미세 근육의 진화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툼 소어의 모험’으로 미국문화를 경축한 마크 트웨인(1835-1910)의 명언을 인용해 비판한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가끔 운율을 맞춘다.(History doesn't repeat itself, but it often rhymes)’
 우리는 과거를 잊지 못해 아픔에 시달리는 것을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과거에서 벗어나는 진화과정을 밟는다.
 꾸준히, 아주 꾸준히, 종종 상스러운 돌연변이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은 주제와 변주의 흥미로운 연속이다. 주제 멜로디와 화음 진행이 숨어있는 변주곡이 잘 연주되는 인생이다. 우리의 삶은 소나타 형식의 감명적인 음악이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재활/물리/운동 치료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운동상해/직장상해 ◆ 청소년 성장클리닉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 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아타운에서 3분, 워싱턴포스트 워터 센터(Starbucks)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첼트리(Starbucks)와 첼트리/포터에서 각각 5분 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이문열 삼국지 만들면 30년 양식 될 것” 박맹호에 홀렸다

(민음사 사장)



이문열, 시대를 쓰다(19)

망설였던 삼국지 번역

『삼국지』를 세 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고, 열 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다투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다양한 긴장 상황을 재미있게 다룬 책이고 극적인 장면이 자주 나온다. 기민한 임기응변으로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는 감각 같은 것은 참모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재미야 진진(津津)한 책이다. 전쟁과 사랑, 대의명분 같은 것들이 얽힌 큰 이야기다. 내가 다섯 번 넘게 읽은 책은 『삼국지』가 유일하다. 그래서 결국 『삼국지』 번역을 하게 됐지만, 1983년 민음사 박맹호(2017년 작고) 사장(2005년 회장 취임)이 불속 『삼국지』 번역을 제안했을 때는 망설임 수밖에 없었다. 젊은 날의 소중했던 몇 년을 ‘통속소설’ 번역이라는 분명치 못한 문화적 효용과 함부로 맞바꾸어도 좋은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79년 『사람의 아들』로 오늘의 작가상 수상 이후 40년 인연을 맺은 박 사장은 교체의 폭이 넓고 매사에 정확한 사람이었다. 2004년 한나라당 공천 심사에 관여한 것도 “지금쯤은 몇 부릴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을 싫어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도와주는 게 좋다”는 그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 박 사장과는 부대끼기보다는 객관적 거리가 있는 덩달한 관계였지만 2019년 민음사와 결별할 때까지 출판계약서 한 장 쓴 일이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유지했다. 금융권의 한도대출 상품(마이너스 통장)처럼 내가 급할 때 우선 쓰고 나중에 채워 넣는 1억원가량의 출판사 돈이 있을 정도였다.

박 사장은 “이 형은 지금 『사람의 아들』이 잘 팔린다고 생각하겠지만 몇 년이면 끝나는 거다. 오랜 세월 문학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내 생각에 『삼국지』는 그런 양식이 될 거다. ‘이문열 삼국지’를 만들어 놓으면 30년 양식이 될 것”이라며 나를 설득했다. 마침 일본의 대중작가 요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가 평생 창작한 다른 작품들보다 번역 『삼국지』의 수익이 더 크다고 했다는 인터뷰를 접하게 됐다.

경향신문 연재를 결심하자 정권 실세와 가까웠던 정구호 경향신문 사장이 힘을 써 여권이 금방 나왔다. 연재를 한 달 앞두고 대만과 일본에 자료조사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연재 조건도 좋았다. 다른 신문 연재의 두 배분량인



하루 12매씩이었고, 고료 역시 두세 배 많은 월 200만원이었다. 80년대 중반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3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국내 번역본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월탄(月灘) 박종화와 시인 김구용의 번역본이었다. 박종화 『삼국지』는 문학적으로 매끄러웠지만 ‘소(疏)’나 ‘표문(表文)’처럼 번역이 어려운 고문(古文)을 한 문장이씩 빼버리거나 엉뚱한 문장들을 집어넣어 놓곤 했다. 김구용 『삼국지』는 대역(對譯)이 가능할 만큼 모종강본(毛宗崗本)에 충실한 번역이었으나 전체 다섯 권으로 소략(疏略)한 느낌이었다.

단순히 번역에만 그친다면 기존 번역본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평역(評譯)의 형식이었다. 내 평문(評文)을 곁들이면 혁명적 권력의 정통성, 전쟁과 역사·철학·과학까지 못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았다.

“축한정통론-관우만 건들지 마라” 조언

취재 여행에서 만난 대만대 우홍이(吳弘一) 교수는 『삼국지』 번역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했더니 축한 정통론과 관우, 이 두 가지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정사 『삼국지』를 편찬한 진수는 원래 유비의 촉나라 사람이었으나 조조의 위나라를 계승한 진나라에서 저작량(著作郎)이라는 벼슬을 지내 조조에 정통성을 두고 『삼국지』를 편찬했다. 반면 14세기 나관중이 편찬한 『삼국지 통속연의』나 청나라 초기인 17세기 모

종강이 편찬한 『삼국지연의』는 이민족의 지배에 맞섰던 한족 정통성을 강조하다 보니 유비 중심의 축한 정통론을 채택하게 된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대만의 삼국지 전문가가 당부할 만큼 중국인들 사이에 유비와 관우에 대한 충성심이 여전한 것이다.

나는 축한 정통론을 뒤흔들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조조는 볼수록 대단한 인물이었다. 소동과가 ‘적벽부(赤壁賦)’에서 언급했듯 간웅이 아닌 군사 지략가였고, 문장가였다. 황제와 다를 바 없는 권력을 누렸으나 끝내 황제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권력추구형 인간에게는 피눈물 나는 인내심이 필요했을 것이다. 나는 ‘조조는 간웅’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중국사 전체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군략가라고 평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수군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연환계(連環計), 배들을 쇠사슬로 얽어둔 계책)가 정사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도 조금이나마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중간에 내가 끼어들다 보니 흥이 깨진다는 독자들의 불평도 있었다.

88년 봄 열 권으로 된 평역(評譯) 『삼국지』를 출간하자 내가 한문에 조예가 깊다는 세간의 평판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자는 내 영혼에 인처럼 박인 문자다. 어려서부터 한자 없는 문장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내게 한문은 참 익숙하고 쉬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런 내력을 『삼국지』 평역의 근거로 내세우기는 어려울 터였다. 지금 같으

2008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주최 ‘삼국지’를 다시 말한다’ 포럼에 참가한 이문열씨. 중국 ‘삼국지’ 전문가 이종텐도 참석했다. (중앙포토)



면 훨씬 신중했겠지만 그때는 간도 컸다. 명말 청초의 문장가 김성탄이 서문을 붙인 『삼국지연의』 모종강본 원본을 매일 한 페이지씩 번역해 원고지 12매씩 신문 연재 분량을 써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평문(評文)까지 곁들이겠노라며 곁으로는 자신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있을 게 없는 것이, 지적인 연마나 배움에 있어서 남들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생각했다. 싸움이라면 마다치 않았고, 그래서 남들에게 호탕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내 성격은 오히려 꼼꼼하고 소심했다.

그런 건 있었다. 남들처럼 하면 안 된다. 더 특별해야 한다. 심지어 평범하면 죽는다고까지 생각했다. 늘 남들보다 늦거나 소속감 없이 지내다 보니 지금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못 배워서 그렇다는 의심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초자아(superego)처럼 내 무의식에는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다는 것이고, 그때는 과로에 빠진 노동자처럼 닦치는 일들을 해냈을 뿐이다. 그런 노동자가 스스로를 반성할 겨를이 있었겠나.

연재 이어지며 항의도 많이 받아

연재 초반에는 우호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항의에 직면했다. 나는 필요하면 원전(原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해 소설적인 리얼리티를 살리되, 그 변형과 재구성은 철저하게 정사(正史)에 의지해 역사를 그릇 알리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다는 생각이었

다. 실제로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다. “졸거리 모르는 사람 있느냐, 작가의 평가 해설이 재미있어서 읽는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재미의 맥을 끊는다”는 독자도 상당했다.

조선작가 리동혁씨의 비판은 잊히지 않는다. 그는 내 평역 『삼국지』에서 무려 900곳가량의 번역 오류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단행본 『삼국지가 울고 있네』를 2003년 국내에서 출간했다. 나는 그 가운데 타당해 보이는 32곳은 곧바로 수정해 감사 편지와 함께 교정판 한 질을 보내줬다.

서울대 수석 합격생 “논술 대비해 읽었다”

평역 『삼국지』는 출간되자마자 무섭게 팔렸다. 지금까지 2000만 부가량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까지 팔린 데는 94년 서울대 수석 합격생이 논술 고사에 대비해 『삼국지』를 여러 차례 읽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민음사 박 사장은 신문 광고는 물론 라디오 광고까지 해가며 『삼국지』가 논술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다. 96년 한 해에만 100만 부가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는 대형 서점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삼국지』를 제외할 정도였다.

중국의 『삼국지』 전문가 이종텐을 만난 것은 2008년 5월 중앙일보 중국연구소가 주최한 『삼국지』를 다시 말한다’ 포럼에서였다. 당시 사면대 교수였던 그는 2005년 중국중앙방송(CCTV)의 인문학 강좌 ‘백가강단(百家講壇)’에서 『삼국지』를 재해석해 신드롬과 같은 인기를 누리기도 있었다. 그는 ‘소통의 달인’ 같았다. 내가 『삼국지』를 평역할 때 활용한 대만 정문서국(鼎文書局)판 정사 『삼국지』에 남은 메모 흔적을 보여주자 “당신이 정말 번역했느냐”며 놀라워했다. 내 『삼국지』 평역을 두고 “고명(高明)하다”고 평하기도 했다.

나는 포럼에서 “진수의 『삼국지』에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나오기까지 1000년의 간극을 메운 힘은 상상력과 시대정신이었다”고 했다.

누구 한 사람만의 힘으로 『삼국지』가 생겨난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시대가 바뀌면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이나 수용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나는 『삼국지』의 수명이 30년 정도라고 봤다. 내 『삼국지』가 생각보다 오래 사랑받고 있는 셈인데, 『삼국지』가 앞으로도 널리 읽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지금 시대의 언어 호흡에 더 익숙한 젊은 세대가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참신한 새 번역본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민음사 박맹호 회장 자서전 『책』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문학평론가 김우창, 언론인 남재희, 시인 고은, 박 회장, 이문열씨(사진 왼쪽부터). 2.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황석영(오른쪽)·이문열 작가가 『삼국지』에 대해 나누는 대담을 소개한 2003년 10월 30일자 중앙일보 지면.



『삼국지』 주인공은 유비도 조조도 아닌 역사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시 설

총선 참패 성찰할 백서 하나 제대로 못 내는 국민의힘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원인과 반성을 담겠다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갑갑무소식이다. 백서 발간에 관여한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서는 이미 지난달 14일 최종본이 완성됐다.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마냥 미뤄지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났고,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50일이 됐어도 여전히 반성도, 변화의 몸부림도 없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가한 웰빙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백서는 300쪽 분량으로 ▶당정 관계 ▶공천 ▶여의도연구원 ▶조직 홍보 ▶전략 ▶공약 ▶

현안 평가 등 총 일곱 가지 분야를 망라했다고 한다. 특히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패싱 논란과 비례대표 사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로선 결코 꺼려진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백서 발간에 부정적인 한 대표 측에선 "채 상병 특검 등 야당과 맞설 단일 대오가 필요한 마당에 자중지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다.

yson 대통령실과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금 백서 공개로 갈등 기류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대표도 지난 7월 전당대회 토론회 당시 "백서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그냥 백서를 통해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을 노골화하고 있

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백서가 안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실로 가벼운 상황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백서는 일종의 예방주사다. 맞을 때는 따끔하고 아프지만, 면역력을 얻기 위한 자양제다. 누구를 벌하고 책임을 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설령 백서에 오류나 왜곡이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한 대표가 직접 백서 출간과 함께 밝히면 되는 일이다. 그 결과 다소의 희생이 따른다 해도 그 또한 정치 지도자로 커가려면 감내해야 할 숙명이다.

헌신과 성찰, 희생 없이 누리기만 하려는 건 보수 진정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

4개월에 걸쳐 설문 조사를 한 544명, 면담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총선 후보·당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몽글 손 없는 일 아닌가. 반성문 하나 제때,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정당, 아니 그런 보수에 어떤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주겠는가.

'성 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침묵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거의 6개월 동안 성범죄자인 양 몰아세워 이 의원을 여당 대표에서 쫓아낸 게 국민의힘 아니었던가.

과거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준석 사태'의 기이한 결말에 대해 국민의힘 누구 하나 설명·사과하거나 유감을 표하지 않고 있다. 그 또한 참 기이한 일이다.

참사 5개월, 한동훈 대표 50일 지나도 계속 미뤄 반성·희생 없는 보수라면 민심 되돌리기 힘들어

고용률 최고라지만 골병들어 가는 일자리 시장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29세에서는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인 72.3%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과 경제에 대한 설전을 벌이며 경기 회복의 근거로 고용 수치를 앞세운 것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는 건 최근의 고용 통계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은 63.2%로 통계작성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취업자(2880만1000명)도 전월보다 12만3000명 늘며, 두 달 연속 10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 총리가 강조한 대로 25~29세 고용률은 73%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업률(1.9%)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겉으로 보이는 고용시장은 순항 중이다.

하지만 각종 지표를 조금만 뜯어 보면 골병 들어가는 일자리 시장의 모습이 보인다. 내수 부진 여파로 건설회사와 소매 및 소매업 취업자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수도 7개월째 줄어든다. 청년층과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22개월과 26개월째 감소 행진이다. 인구가 준 영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각종 착시를 걷어내면 상황은 더 심각하게 다가온

다. 일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엔 1년 전보다 24만5000명 늘어나며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은 실업률을 산정하는 모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을 포기하며 사라진 이들로 인해 사상 최저 수준의 실업률이 가능했다는 역설도 가능하다.

8월 기준 가장 높은 고용률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절반이 넘는 54.6%가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다. 198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8월 기준으론 가장 높다.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늘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 탓에 청년층이 단시간 근로에 나선 영향이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일하고, 기업도 필요한 만큼 근로자를 고용하는 '긱 이코노미'의 흐름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 비중이 커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탓이다.

좋은 일자리가 경제 성장의 근간이다. 고용 안정이 이뤄져야 소비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도 풀 수 없다. 정부는 겉으로 보이는 지표에 반색한 안이한 전망을 접고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22년 만의 국민 방일 가능할까

김현기의 시사각각
時視各角



#1 열흘 전쯤 일본 도쿄로 짧은 출장을 갔다가 두 가지에 놀랐다. 첫째는 은행 ATM기. 돈을 꺼내려고 은행 현금카드를 넣으니 '인출 불가'란다. ATM기 옆에 붙어 있는 인터폰으로 문의하니 "당신(외국인) 재류카드의 만기가 한 달 지났다. 갱신된 재류카드를 갖고 창구로 오라"고 했다.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다. 한 달은커녕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재류 자격이 정지됐어도 그 정보가 은행과 공유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었다. 시스템이 따로따로였다. 그래서 오래된 은행 계좌,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도 그대로 사용 가능했다. 여전히 그런 줄 알았다. 한국판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의 도입, 그리고 행정 시스템의 IT 통합화가 물고 은 놀라운 결과다.

둘째는 은행 창구의 대응. 인출이 불가능해졌으니 아예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찾아가겠다고 하자 직원은 "통장 개설 때 사용한 도장을 제시하라"고 했다. "20년 이상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도장이 어디 있겠는가.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왔으면 돈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도 "매뉴얼에 그리 돼 있다"며 친절하게 거절한다. AI 시대에 도장 파위가 본인 혹은 신분증보다 위인 나란다. 큰 시스템은 바뀌었지만, 현장의 매뉴얼은 그대로다. 90분간의 지루한 공방 끝에 지점 책임자가 내놓은 절충안은 기가 막혔다. "그럼 다른 도장을 아무거나 파오세요" 그랬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책임을 피할 수단이었다. 그걸 알고 끈기있게 우기면 물러설 줄 아는 나라가 일본이다. 좋게 말하면 말이 통하는 나라다. 시종 고압적인 북한이나 중국과는 다르다.

#2 이는 한·일 외교에도 시사점을 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양국 관계의 큰 틀은 극적으로 변했다. 시스템이 확 변한 셈이다. 하지만 외교 현장의 매뉴얼은 그대로다. 당장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는 내년이 문제다. 한국은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획기적 공동 선언을 희망한다. 하지만 일본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공동선언을 내려면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사과의 수위와 표현을 두고 또 실랑이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사과 불가능하다"는 매뉴얼 속에 일 외무성 관료들이 '총대'를 매고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한다 해도 그 수위는 한국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들의 책임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대체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푸시'가 필요하다. 난 그게 일본의 윤 대통령 국민 초청이라고 본다. 한국 대통령의 국민 방일은 전두환(1984년), 노태우(90년), 김대중(98년), 노무현(2003년) 이후 무려 21년간 끊긴 상태다. 무엇보다 내년에 22년 만에 국민 방문을 하게 되면 일본 천황과의 만남이 이뤄지고, 이때 '오코토히'라고 불리는 천황의 양국 관계에 대한 발언이 나

천황의 과거사 발언은 무게감 달라 일 정부 짐 덜고 우린 실리 챙기는 양국에 윈윈 되는 최적의 절충카드


온다. 천황의 입에서 나오는 과거사 발언은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 양국 정부 간에도 공동 발표문이 나올 공산이 크다. 못다 한 말들이 있으면 일본 의회연설에서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형식이나 책임 면에선 일 외무성이나 정치인들이 반걸을 뒤로 빠질 수 있고, 우리로서 60주년에 걸맞은 결과물을 대부분 챙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국내의 '친일 굴종 외교' 공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단, 1년에 국민 초청을 두 번 이내로 제한하는 일본의 관례상 다소 서두를 필요는 있다. 당장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국민 방일을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봄 오사카 엑스포의 한국관 오픈에 맞춰 가거나, 새로 뽑힌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시기 선택도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은 우겨야 물러선다. 아니, 우긴다기보다 물러서지 않고 설득하면 된다. 고분 고분 '좋은' 사람 행세만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 습관적 관성이다. 최근의 한·일 외교 결과를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는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6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대림출판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 NHK, 日本經濟新聞)
사상·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권역: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 / 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라,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림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티널 미용실 \$90,000

재투자 상담
1031 Exchange Specialist

부동산 장기 투자해서 매매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되지 않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지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9월 스페셜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온열 지압침대
백들이 온열지압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팜'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ECO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본토휴침대 100% 생황토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침대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원적외선 명품매트

휴표 휴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특정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도 거기를 채우고 찜질용 특수함~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마일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통증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눈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가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감,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봉 매트

2020년 최우수 브랜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세탁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추석선물은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고마운 분에게 전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GIFT BOX

10+1
10개는 구입시 1개는 증정

한국산 배(7-8과)
Korean Pear (7-8's)

~~\$34.99~~
\$29.99

BOX

GIFT PACK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
Korean Shine Muscat

~~\$29.99~~
\$19.99

PK (600 G)

GIFT BOX

사조
선물세트

진간장+양념쌈장+참치액
+참기름+요리유+참치캔
Sajo Special Gift Set
(Boy Sauce + Saemjang + Tuna Sauce
+ Sesame Oil + Cooking Oil + Tuna Can)

~~\$29.99~~
\$19.99

2,398 G

GIFT BOX

지도표
성경 전장김 박스
(녹차/채래)
Sung Gyeong Seasoned
Laver Full Cut Box
(Green Tea / Traditional)

~~\$24.99~~
\$16.99

10X30 G

GIFT BOX

해푸름
초사리 햇미역
Hae Pureum Dried Seaweed Gift Box

~~\$23.99~~
\$17.99

400 G

GIFT BOX

삼립
카스테라
선물용
(벌꿀/녹차)
Samlip
Castella Cake Gift-Box
(Honey / Green Tea)

~~\$11.99~~
\$7.99

17.99 OZ

GIFT BOX

오리온
초코몽 박스
Orion Choco Mont Box

~~\$8.99~~
\$5.99

15.24 OZ

원칙 중 오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 Starling, VA: 30 Polygon Hill Dr, Starling, VA 20168
- Centreville, VA: 5905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 Chantilly, VA: 139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 Annandale, VA: 1304 Park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 Ashburn, VA: 43300 Farmwell Hunt Place, Ashburn, VA 20147
- Herndon, VA: 490 Edison Street, Herndon, VA 20170
- E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icott City, MD 21043
- Catonsville, MD: 8601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Rockville, MD: 7802 Veas Mill Rd, Rockville, MD 20851
-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September 12,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통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주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한 지붕 3대, 따로 또 같이 산다

다세대 주택 최근 한 지붕 아래 3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multigenerational hous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핵가족이 보편화된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선 한 지붕 아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거주 형태는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최근 집값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결혼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 이후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세대 주택이 새로운 대가족 주거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인구 18%, 6000만명 다세대 주택 거주 지하실·차고 개조, 독립 유닛 증축하기도

▶**현황**
다세대 주택이란 한 지붕 아래 2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주거 형태를 가리킨다.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 형태도 다세대 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보다는 조부모, 부모, 자녀 등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다세대 주택 거주자 수는 2019년 보다 100만 명 증가했으며 1971년과 비교하면 4배나 늘어 약 6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의 18%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시니어와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의 모델을 개발 중인 비영리 단체 세대연합(Generations United)은 “다세대 주택 개발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건강과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앞으로 다세대 주택 커뮤니티 개발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류**
다세대 주택 형태는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기존 주택에 별채

(ADU)를 증축하는 형태다. 기존 주택에 ADU를 추가할 때 주로 지하실 또는 차고를 개조해 별도의 유닛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ADU 신축 또는 증축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땐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어 다세대 주택 개조를 원하는 홈오너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주택과 출입문을 달리한 독립 유닛을 증축하기도 한다. 그러나 증축할 여건이 안 될 경우엔 한 집에 살면서도 각 세대가 층별로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는 형태도 있다.

▶**트렌드**
최근 다세대 주택 트렌드는 한 지붕에 3대가 모여 사는 가족 공동체에서 더 확장돼 혈연관계 없이 한 커뮤니티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거주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시니어 주택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내 세대 간 통합을 위한 공용 공간 및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세대 주택 전문가들은 “진정한 세대간 교



최근 집값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3대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unsplash.com 제공]

류(intergenerational living)를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면 젊은 세대와 노년층 간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5개 주에 다세대 주택 1200개 유닛을 운영 중인 세대연합은 다세대 주택을 시니어 주택의 미래로 보고 현재 건설업자 또는 커뮤니티 개발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런 다세대 주택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이 추진할 세대 간 통합 커뮤니티는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이 편하게 거동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내 인프라 구축 및 레크리에이션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도 포함돼 있다.

▶**개조 시 고려사항**
다세대 주택의 신축 또는 증축 시엔 모든 연령대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하는 것이 키포인트. 예

를 들어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턱이 없는 현관, 계단 대신 램프 설치, 그리고 주방 내 낮은 카운터톱과 같은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시력 저하나 청력 손실이 있는 시니어 가족 구성원을 위한 조명, 청각 보조 장치 등도 포함돼야 한다. 또 다세대 주택에서는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실과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규모의 거실, 주방, 다이닝룸도 마련해야 한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올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즉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시니어 부모가 요양시설로 이주할 경우 이들이 쓰던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이주현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SF 복층, 월순수입 \$11,000	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연매상 \$1,058,000	에안데일 최고의 상권 단독건물 K-Market 건너편 2500 SF. 식당이나 카페샵, 맥주 전문점 하면 좋은자리 임대 문의 바람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
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Beer & Wine Shop 35만불, 주2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DC 유명 델리 판매가 55만불 주인없이 운영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Beer & Wine Shop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주재원, Start-up 회사, 한국공기업,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전문부동산 다량의 기업 성사 기록보유.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120에서 당신 나이 빼보라 노후엔 그 비율로 주식 사라

은퇴하고 나면 돈을 매달 얼마씩 꺼내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언제 삶을 마감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매달 일정한 돈을 인출했는데 예상보다 오래 산다면 어떻게 될까. 죽기 전에 통장이 바닥나 힘든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반대로 자린고비처럼 아끼며 살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남긴 채 '가난하게 살다 부자로 죽는' 것도 상상하기 싫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선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서점에는 노후를 위한 투자법, 통장이 바닥나는 시점을 최대한 미루는 방법에 대한 책이 쏟아진다.

요리후지 대표의 '코어-새틀라이트' 자산
자료: 요리후지 타이키 제공

코어 (70% 이상)	현금예금 및 일본국채(무위험 자산으로 최소 1000만엔) 회사채 및 미국국채 인덱스펀드(해외주식) 고배당주식(일본 및 미국) 부동산투자(도쿄, 원룸) 금
새틀라이트 (30% 이하)	자본차익을 목표로 한 일본, 미국주식 외환 및 암호화폐

그래픽=김호준

지난 6월 출간된 『60세부터의 신(新) 투자술』이 대표적이다. 저자인 요리후지 다이키 머니앤드유(Money&You) 대표는 "고령층의 투자는 젊은층의 투자와 달리 자산을 안전하게 다 쓰고 죽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Die with zero(0으로 죽자)"를 강조한다. 중앙일보 머니랩이 요리후지 대표를 온라인으로 인터뷰했다. 은퇴 후 30년간 고령층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100세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노후자산 인출 방법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여기서 원-엔 환율은 100엔=920원으로 계산했다.

- '60세부터' 투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전에도 은퇴 세대를 위한 책을 몇 권 썼다. 『은퇴 후에도 걱정없는 돈 이야기』는 10만 부 넘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반향도 있었다. 많은 분이 저축을 남기지 말고 죽자는 'Die with zero'에 공감했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Die

with zero'가 아니라 '거의 Die with zero'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자산을 꺼내 쓰면서 줄여가되, 일부는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꿔 죽을 때까지 보유하는 거다."

- 노후의 투자는 젊을 때와 어떻게 다른가.
"일본에서 '노후'라는 것은 70세 이후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70세 이전까지 일하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다. 65~69세 남성의 62%, 여성의 43%가 일하고 있다. 젊을 때에는 시간과 복리 효과를 활용한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60세부터는 이전까지 준비한 투자 자금을 계속 투자하는 동시에 70세까지 10년간의 근로 수입 일부분(매달 1만~5만 엔)을 적립 투자하는 게 기본이다. 완전히 은퇴한 70세 이후엔 자산을 꺼내 쓰는 동시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게 핵심이다."

- 한국에선 부동산과 예·적금에 쏠려 있다.
"부동산'이 자신이 거주할 용도라면 수익면에선 별로다. 반면에 다른 사

람이 거주하는 원룸이나 아파트 등 투자 자산이라면 좋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게 중요하다. 예금은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 자산으로 500만~1000만 엔(약 4600만~9200만 원) 정도는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하지만 예금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자산이다. 자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가 필요하다. "자산을 운용하면서 쓴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 한국에선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도 문제다.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 등으로 일은 계속 해야 한다. 다만 생활비를 위해 무리하게 일하지 않도록 금융자산 투자를 동반해야 한다. 자산 운용에 따른 수입이 있다면 단시간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은퇴 후 자산 투자 원칙으로 제시한 '코어-새틀라이트 전략'이 뭔가.
"자산을 '코어(Core·중심)'와 '새틀

라이트(Satellite·위성)'로 나누는 거다. 코어, 즉 핵심 자산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위성 자산은 적극적으로 투자해 자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노후에는 코어 자산을 70~90%로 많이 확보하고, 위성 자산은 10~30%로 운용한다.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고, 자산을 처음 불릴 때부터 마지막까지 활용할 수 있다. 코어 자산은 현금(예·적금), 채권, 펀드, 인덱스펀드(ETF·상장지수펀드), 리츠(REIT) 등이다. 위성 자산은 국내의 개별 주식, 액티브펀드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 추천하는 노후 '코어-새틀라이트' 투자법은.
"우선 코어에는 현금과 국채 같은 무위험 자산을 반드시 보유하라고 하고 싶다. 노후에는 500만~1000만 엔 정도를 확보하면 좋겠다. 펀드나 ETF는 각자 위험 허용 수준에 따라 선택하되, 1~2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만약

신용이 충분하다면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다. 위성 자산의 핵심은 미국 주식을 포함한 주식 투자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ETF 만으로도 충분하다."

- 고령층 투자자가 가장 두려운 건 증시 폭락이다.
"기본 생활비, 병을 대비한 치료비, 몇 년 내 예정된 인생의 이벤트를 위한 돈은 원금 손실 우려가 적은 상품으로 보유해야 한다. 예금이나 국채 같은 무위험 자산이 대표적이다. 이런 무위험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폭락장이 와도 자산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시장은 언제든지 크게 빠질 수 있지만 계속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다."

- 무위험 자산은 어느 정도 보유하면 되나.
"개인차가 있지만 '120세 나이' 법칙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무위험 자산은 자신의 나이만큼, 위험 자산은 120-나이 비율로 보유하는 거다. 예를 들어 지금 40세라면 무위험 자산을 40, /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티비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대출 제한으로 집값 잡기 한계 ... 주택 공급 확대 입법 서둘러야

시장이 움찔했다. 거침없이 오르던 집값 상승세가 지난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대출규제 강화 발표 이후 주춤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지난달 중순 0.3%를 돌파해 0.32%까지 올랐다. 하순에 0.26%까지 내리더니 이달 들어선 지난주 0.21%로 3주 새 0.1%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은행 통계도 마찬가지로. 한국부동산원과 국민은행 통계 모두 지난주 상승폭 감소가 두드러져 대출 규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드물지만 일부 단지에선 실거래가격이 내렸다.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의 실거래가가 지난달 초 19억3000만원에서 이달 초 18억9000만원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매수 문의 전화가 줄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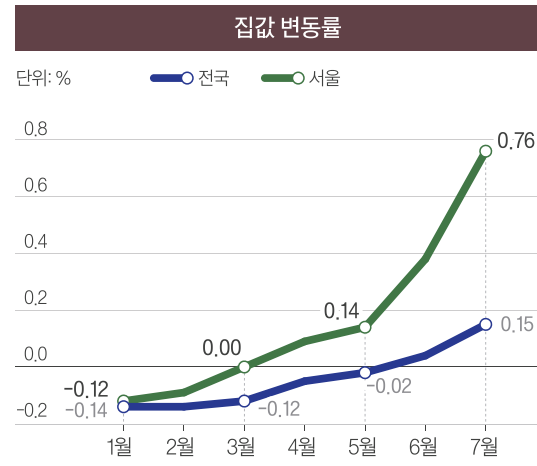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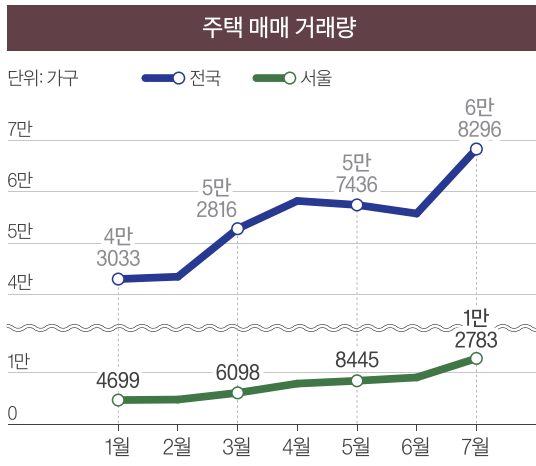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7월 상승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치솟으며 과열 우려를 낳던 주택시장의 열기가 조금 꺾였다. 대출 규제가 주택 매수세를 끌어올렸다. 정부가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서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등을 통해 초 내놓은 공급 확대책의 입법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지난달 8일 추가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계속 풀던 대출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했다. 지난달 16일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 전방위 가계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

주택 매매 거래 급증하고 가격도 급등



집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에도 수요자 불안, '영끌' 부추길 수도

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500여 건으로 6월 대비 55% 증가했다. 7월 거래량으로 지난해(3804가구)의 두 배가 넘고, 급등기였던 2020년(1만6002가구) 이후 최대다. 가격 상승은 더 놀랍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7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19%로 6월(0.56%)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3월까지 '마이너스'이던 변동률이 불과 4개월 만에 1%선을 뛰어넘었다. 7월 상승률은 2005년(1.75%) 이후 19년 만에 최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순식간에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뛰자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 때의 집값 급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불안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며 집값은 경제 전반의 위험요소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32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

액(21조9000억원)의 1.5배를 기록했다. 정부는 거래 제한 같은 직접적인 규제 대신 대출 약제를 통해 브레이크를 밟았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로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였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대출총량제를 부활해 전체 대출 총액을 제한했다. DSR에 상관없이 아예 대출창구를 막은 것이다.

문 정부 고강도 대출 규제의 '악몽'

그런데 이번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는 한계가 있다. 집값 상승세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기 어렵다. 잠시 김을 뺄 수는 있어도 열기를 완전히 식힐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8·8대책에서 아파트 공급 시차를 매우기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지만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는 주택 수요를 분산하거나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지난 4월 이후 7월까지 주택 매매거래의 67%가 아파트다. 주택거래가 폭발한 7월엔 아파트 비중이 75%까지 올라갔다. 3월 이전 아파트 비중은 50%대 이

었다. 정부의 오락가락 금리 정책과 대출 제한 은행 떠남기기는 시장 혼란을 낳고 수요자를 불안하게 만든다. 수요자가 불안해지면 조급해져 묻지마식 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제한 기준을 정부가 통일하는 게 낫다.

앞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했듯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기에 대출 제한은 집값을 잡는 데 역부족이다. 집값이 오르고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면 수요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한다. '영끌'(영혼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이 퍼진다는 의미다. 문 정부 때 2020년 이후 집값 폭등은 공급량에도 2019년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유례가 없는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였다. 대출 규제의 역설이자 악몽이다. 대출 제한보다 금리 인상의 주택 수요 억제력이 크기는 하다. 대출금은 집값이 오르면 보전받는 투자지만 금리에 좌우되는 이자는 손실인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 반대(집값) 잡으려다 초가삼간(나라 경제) 태울 수 있어서다.

국회가 공급 확대 길 터줘야

여기다 주택시장 환경이 앞으로 녹록지 않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각종 개발 호재가 본격적으로 집값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중부세를 비롯한 주택 세제 완화 등이 시행에 들어가면 집을 팔려는 사람은 줄고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크다. 집값 하락보다 상승 변수가 훨씬 많다.

수요 억제 효과가 단기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대출 규제 등 돈줄 죄기는 없는 자의 지렛대를 자르고 가진 자만의 판을 깔아 주는 것이어서 공정성 논란도 크다. 지난달 8·8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밀그림이 대부분 그려졌다. 문제는 '희망 고문'에 그치지 않게 빨리 주택을 지어 시장에 실제로 공급하느냐다. 시작은 국회다. 속속 올라오는 공급 확대 관련 법안을 여야가 적극 통과시켜 주택공급 확대의 길을 터주고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 개발 호재에 따른 단기 집값 상승을 상쇄할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인장원 부동산산업기자

위험 자산을 80 비율로 가져가는 식이다. 자산이 1200만 엔 있다면 400만 엔은 예금과 채권으로 보유하고, 800만 엔은 주식 등 위험 자산으로 운용하면 된다.”

-70세부터 100세까지 돈을 딱 맞춰 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죽을지 미리 안다면 계획적으

로 자산을 '제로'로 만들 수 있겠지만, 수명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제로'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 우선 예·적금을 300만~500만 엔(약 2760만~4600만원) 정도 두고, 현금 흐름(캐시플로우)이 나오는 자산을 500만 엔(약 4600만원) 정도 만들어 둔다. 그런 뒤에 남은 자산을 매달 나눠서 꺼내 쓴

다. 이때 예·적금 자산은 질병이나 간호를 위한 돈으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

-매달 얼마 정도를 써서 쓰면 될까. “자산을 매달 써서 쓰는 방법에는 '정액 인출'과 '정률 인출'이 있다. 정액 인출은 매달(매년) 같은 금액을 써서 쓰는 방법이다. 만약 1200만 엔(약 1

억1040만원)을 연 4% 수익률로 운용하면서 30년간 인출한다면 매달 5만 8000원(약 53만3600원) 정도를 정액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해 4%의 수익률을 내지 못할 수 있는 게 문제다. 정률 인출은 일정한 비율로 인출하는 방식이다. 정액과 정률을 반반씩 섞는 방법도 좋다. 예를 들어 1200

만 엔이 있다면, 심신이 건강한 노후 전반기에는 매년 8%씩 정률로 인출한다. 그러다가 자산이 절반(600만 엔)으로 줄어들 때부터 연 60만 엔씩 정액 인출하는 것이다. 70세부터 100세까지 30년간 인출하는 전략으로 추천한다.”

남윤서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1,250,000	\$750,000	\$699,000	\$569,000
**방4/화3.5/차고2. Many Upgraded.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방3. 화 2.55/차고 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터, Bathrooms)	**방4/화3.5/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올 서울 아파트 전셋값 고점의 90%까지 회복 대출규제가 더 부추기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면서 2021~22년 최고가의 9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시행하는 대출규제가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10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

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전셋값이 2021~22년 최고가의 평균 89.8%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 내역이 있는 동일 아파트 동일면적의 주택 유형 1만602개의 전세 최고가 회복률 평균을 낸 것이다. 주택 유형 가운데 2215개(20.9%)에서는 올해 전세보증금 최고가가 2021~22년보다 높거나 같은 '전세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용산 등 고가 아파트의 전셋값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면적 244㎡는 지난 4월 전세보증금 55억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2021~22년 최고가 29억원(2021년 7월)보다 무려 26억원 뛰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08㎡는 지난 2월 2021~22년 최고가(35억원)보다 14억원 높은 49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셋값 상승세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7419건으로 올 초(3만4822건)와 비교해 21.3% 줄었다.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시중은행이 꺼낸 대출규제 카드가 전세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대기 수요가 대출규제로 전세 시장에 머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연말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8월 기준 54%)이 58%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분당, 15만가구로 재건축 ... 6만가구 늘린다

재건축 계획안 주민공람

용적률 315%로 35만명 인구 수용 연내 1만2000가구 선도지구 지정 2035년까지 연 9000가구씩 공급 일산 1기 4곳 밀그림 모두 나와



2035년까지 15만 가구 규모로 재건축해 35만명이 살게 될 분당 신도시 전경. [중앙포토]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밀그림이 나왔다.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순차적인 재건축을 통해 2035년까지 5만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이 같은 내용의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에서 분당의 기존 용적률을 315%로 제시했다. 기존 용적률은 쾌적한 정주 환경 유지가 가능한 일종의 적정 개발밀도다. 성남시는 분당 내 아파트에 대해서 기존 용적률을 326%로 정했고,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분당은 평균 용적률이 174%로 9만6000가구(23만명) 규모다. 앞으로 기존 용적률에 맞춰 재건축하면 5만 9000가구(12만 명·61%)가 추가로 늘어나 분당은 15만5000가구(35만명)를 품는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성남시는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라 올해 최대 1만2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35년까지 매년 8000~9000가구를 꾸준히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주 대책으로는 분당 내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성남시는 현재 인접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지구와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용인플랫폼시티 등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을 이주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 중이다.

또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는 크게 3개 구간으로 나눠 10%·41%·50%를 적용할 방침이다. 1구간은 현재 용적률에서 기존 용적률 사이로 공공기여율이 10%다. 분당의 아파트 기준 용적률이 326%인 만큼 재건축 아파트의 정비 용적률이 326% 이하라면 공공기여율 10%가 적용되는 식이다. 하지만 정비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을 넘어서면 공

공기여율이 확 높아진다.

정비 용적률이 326% 초과~400% 이하일 경우 공공기여율 41%를 적용하고, 401% 초과부터 분당의 아파트 최대 용적률인 450%까지는 공공기여율 50%를 적용키로 했다.

성남시는 정비계획안에서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라는 비전 아래 ▶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역세권 특화 전략 구축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조성 등 세 가지 정비 목표도 제시했다. 역세권별로 도시 기능을 배분한 것이 눈에 띈다.

예컨대 야탑역 역세권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 연구개발(R&D) 벨리를 연계하도록 육성하고, 판교역·성남역은 수도권 환승 거점으로 조성한다. 수내역·정자역은 주변 확원가를 고려한 특화구역으로 키우고, 백현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리역세권 일대는 '중심지구 정비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기술이 결합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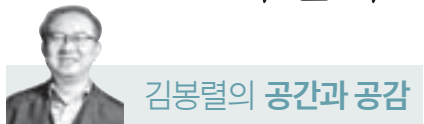
리역세권 정비가 분당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분당 정비계획안이 발표되면서 1기 신도시 가운데 일산을 제외한 4곳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앞서 중동은 기본 용적률을 기존 216%에서 350%, 평촌·산본은 각각 204%, 207%에서 33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동은 5만8000~8만 2000가구, 평촌 5만1000~6만9000가구, 산본은 4만2000~5만8000가구로 각기 늘어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하며, 2035년까지 총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날달 중동·산본·평촌에 이어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며 "공개 예정인 일산을 포함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 금융 지원 등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사실이 신화가 된 왕국, 미케네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스파르타 왕비와 트로이 왕자가 벌인 불륜의 도피행각에 격분한 왕의 형,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을 조직해 트로이를 침공한다. 에게 해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이 발발했다.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드'는 신화적 서사로 여겨졌으나 19세

기 하인리히 슐리만의 발굴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트로이의 실재를 확인한 슐리만은 곧이어 미케네 유적을 발굴했다. 아가멤논의 왕국이었던 미케네는 기원전 16세기부터 400년간 그리스와 지중해의 최강국으로 군림한 이른바 '미케네 문명'의 발상지다. 성곽과 도시구조와 왕가의 무덤들이 잘 보존되어 신화를 사실로 재현하기에 최적의 무대가 되었다.

호메로스는 이 도시를 '견고한 성벽'과 '넓은 길'과 '황금의 도시'로 묘사했다. 바위 구름 위에 높이 13m, 두께 7m의 성벽을 둘러 난공불락 요새를 구축했다. 20t이 넘는 거대한 돌들을 '키클롭스 양식'으로 쌓았다. 신화의 외눈박이 거인(키클롭스)의 작품이란 뜻이다. 성안에 폭 3.6m의 대로를 깔아 교통을 원



활히 했다. 성 정문 '사자문'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슐리만은 15kg 이상의 황금 유물들을 발굴해 황금의 나라였음도 증명했다. 그가 운다는 '아가멤논의 가면'이라 잘못 추정할 결자도 포함되었다.

성안 정상부에 궁전을 지었고 그 아래에 신전과 가신들의 주택을 배열했다. 거대한 원형 매장묘는 왕가의 공동 무덤으로 고귀한 유물들이 나온 곳이

다. 전설적인 건국 영웅, 페르세우스의 이름을 딴 저수조는 18m 지까지 계단식 터널을 뚫은 경이로운 시설이다. 성 밖에 '도로스 무덤'을 여러 곳 조성했다. 원뿔형 모양의 돌을 쌓아 내부 공간을 만든 왕가의 무덤이다. 추방된 왕자가 반란으로 등극한 후 살해당하는 왕들의 연대기들은 '아가멤논' '엘렉트라' 등 그리스 비극의 소재가 되었다. 신화강자 트로이까지 정복해 지중해의 원망이 되었지만 결국 미케네는 내부의 혼란과 갈등으로 멸망했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미래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용자”

- 주택용자
- 자영업자용자
- NON-QM
- DSCR용자
- 외국인용자
- 상업용자

VA/MD/DC/TX 외 12개주 가능

Sylvia E Son

Sr. Loan Officer (NMLS: 2315308)

EMET

MORTGAGE

(NMLS: 1301672)

7619 Little River Tnpk, #320, Annandale, VA 22003

+1.703.629.2866

Sylvia.son@emetmortgage.com

An Equal Housing Opportunity Lender. Copyright 2015 - 2021. Emet Lending Group, Inc. DBA Emet Mortgage headquartered at 2601 Saturn St., Ste. 200 Brea, CA 92821. NMLS ID # 1301672. Toll Free # 866-777-3638. All rights reserved. Restrictions may apply. All loans are subject to credit, underwriting and property approval guidelines. 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NMLS) Consumer Access Web Site: www.nmlsconsumeraccess.org.



THE CENTURION GROUP

THE CENTURION GROUP
TTR |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차별화된 Sotheby's 만의 격조 있는 서비스를 지금! 경험 하세요.



Sylvia Son

Preferred Lender (MLO 2315038)
+1.703.629.2866
Sylvia.son@emetmortgage.com



David Park

Managing Principal
+1.646.644.2564
dpark@ttrsir.com



Jenny Park

Operations Manager
+1.858.692.4774
jennypark@ttrsir.com

계속되는 치열한 매물시장!
Sotheby's 팀은 바이어님들을 위해 오늘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럭셔리 콘도미니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000,000
콘도, 12유닛, 넓은 주차장, 12,411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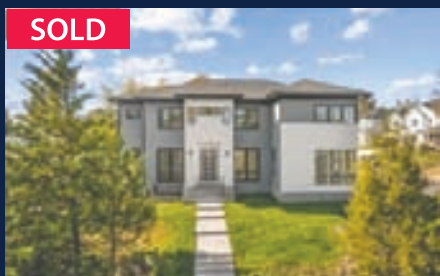
\$9,2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8,132 SqFt



\$4,776,000
콘도, 6유닛, 넓은 주차장, 12,180 SqFt



\$3,804,900
콘도, 12유닛, 7,865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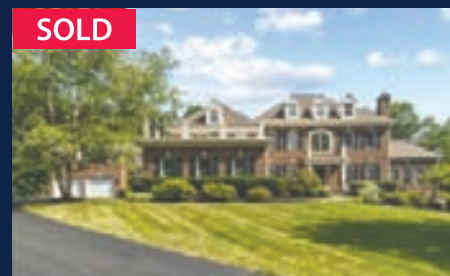
LIST: \$2,390,000
SOLD: \$2,285,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8, 4,821SqFt



LIST: \$2,219,000
SOLD: \$2,1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LIST: \$2,188,888
SOLD: \$2,20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4,360SqFt



LIST: \$1,750,000
SOLD: \$1,7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6,804SqFt

오픈하우스 일정: 824 18th st NE, Washington D.C., 20002. 매주 일요일 2pm- 4pm.
웹사이트: <https://www.dmvcenturiongroup.com/>



LIST: \$3,199,000
SOLD: \$3,0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7, 4,075SqFt



LIST: \$2,250,000
SOLD: \$2,125,000
싱글홈, 방 7, 화장실 8, 4,887SqFt



LIST: \$2,219,000
SOLD: \$2,1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LIST: \$1,850,000
SOLD: \$1,892,476
싱글홈, 방 6, 화장실 8, 5,195SqFt



LIST: \$1,150,000
SOLD: \$1,15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7, 4,505SqFt

부동산 가이드



캐티리
드림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시스템의 변화

협상 가능 커미션, 구조 명확하게 공개
에이전트 서비스의 질적 하락 우려

몇 주 전부터 각종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이 문제는 2022년 미주리의 법원이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자가 에이전트에게 직접 커미션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이 판결은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새 시스템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거래에서의 커미션 구조와 금액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에이전트의 역할과 그에 따른 보수 구조를 더 명확히 정의하여, 소비자들이 에이전트의 서비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커미션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협상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보다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자에게 커미션이 명확하게 공개되는 것이 장점이다. 숨겨진 비용이 없어서 판매자가 예상외의 비용을 피할 수 있는 투명성이 증가한다. 단점으로는 일부 에이전트가 낮은 커미션을 수령하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구매자에게 장점은 거래의 모든 비용이 명확히 공개되어 예측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매자는 에이전트와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커미션을 협상하고 비용을 직접 조정하는 과정에서 따로 서명하고, 오퍼와 함께 들어가

는 서류들이 늘어나서 복잡함이 증가할 수 있다.

새 시스템으로 인해, 이제는 구매자가 에이전트에게 직접 커미션을 지급해야 하므로, 어느 구매자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에이전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셀러 측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구매 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진행할 경우, 경험 부족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복잡성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법적 조항이나 거래 조건 등을 잘못 이해하여 불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에이전트들은 시장 동향, 유사 매물의 가격, 최근 거래 사례 등을 잘 알고 있다. 구매자는 이러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셋째, 에이전트들은 협상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구매자가 직접 협상하려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넷째, 거래 과정에서 법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에이전트를 통한 중재 역할 또는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나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끝으로, 요즘은 에이전트들이 구매자들에게 주택 쇼잉 전후로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바뀐 시스템으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설명을 통해, 우려 없이 서명하고, 집 소유를 시작하면 될 것 같다.



준리
콜드웰뱅크
베스트부동산

CAP 레이트의 한계

장기변동성 반영 안돼 실수익 가능 한계
소득세율·부동산 가치 변화 여부도 영향

CAP 레이트(CAP Rate-자본환원율)는 부동산의 수익률을 가능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이번 칼럼을 통해 CAP 레이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한계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CAP 레이트는 부동산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1년 동안 30만 달러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500만 달러에 구매한 상황을 가정해보겠다. CAP 레이트는 순수익(30만 달러)을 매매가(500만 달러)로 나눈 6%다. 달리 말하면, 은행에 500만 달러를 저축해 연 이자율 6%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CAP 레이트를 활용하면 수익률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탓에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CAP 레이트는 장기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임대료가 매년 오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공실이 발생해 수익에 타격이 생기는 상황 역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해 CAP 레이트는 용자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금 조달 방식과 규모가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8%의 이자를 내고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산다면, 다운페이먼트를 최소로 납부하고 용자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를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부동산 투자자는 빌린 자금을 활용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CAP 레이트는 이러한 금융 전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또 변동금리로 용자를 받았다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도 가능할 수 없다.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 번째로 세금과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한 수익을 내는 부동산이라도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납세 규모와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다. 소득세율이 높은 투자자라면 세금을 지불한 후의 실제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각 부동산의 손익 상태는 전체 세금 부담과 최종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로, 미래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가치 상승도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CAP 레이트는 가격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실질 수익률을 평가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지표들이 현금수익률(Cash On Cash),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누적자본방법(Accumulated Capital Method) 등이다.

이들 방법은 투자 기간 전체를 포괄하고, 용자와 세금, 가치 상승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부동산 이야기

상업용 부동산 리노베이션

연 20% 추가 투자 수익률 확보가 기준점
임차인 만족도 향상으로 장기 거주 효과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리노베이션(개량 공사)을 고려합니다. 개량공사는 단순히 페인트칠을 새로 하는 것부터 화장실 개조, 건물 내부 리모델링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량공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로 인한 투자 수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비용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공사를 통한 인컴 증대 잠재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장점을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공사를 하는 게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개량공사의 결과로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임대료 상승효과가 적다면 그 공사는 가치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수입공식'을 사용합니다. 1000달러를 개량공사에 투자하면 매년 200달러 정도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연 20%의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지만, 이 수익률은 지역 및 건물주의 기대치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건물주가 건물의 외벽을 새로 페인트 하는 데 1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로 인해 매년 2000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 개량공사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 2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는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였다고 저는 조언합니다.

개량공사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건물의 렌트비를 지역 내 유사한 조건의 건물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미 지역의 평균 렌트비보다 높은 렌트를 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개량공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개량공사를 통해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이는 수익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의 입주자 질을 높이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오래 거주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개량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인컴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이 필요합니다.

렉스 유 · CBRE Korea Desk 대표

▶▶ 1면 '다세대 주택'에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변형 벽이나 다목적 공간 등 언제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또는 개조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만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를 효율성이 높은 고효율 HVAC 시스템, 단열재 강화,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전기료와 유틸리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가족 전체의 생활비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다세대 주택을 위한 설계 또는 개조 시 조금만 신경 쓰면 가족 모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뿐더러 대가족이 함께 살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

구독신청 : 703-281-9660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주택 리스트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p>SOLD</p> <p>Bowie</p> <p>\$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SOLD</p> <p>Rockville</p> <p>\$280,000 콘도</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화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59,000 타운홈, 방4, 화3,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COMING SOON</p> <p>Rockville</p> <p>싱글홈, 방5, 화2, 차고2</p>	<p>SOLD</p> <p>Cockeysville</p> <p>\$470,000 싱글홈, 방4, 화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RENTED</p> <p>Elkridge</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3</p>	<p>RENTED</p> <p>Sliver Spring</p> <p>월 \$3,500 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 콘도 방2, 화2</p>	<p>Hanover</p> <p>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운 고민,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의논해주세요.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급매



\$56만

알링톤 콘도
방2개 2층짜리
교통좋은 매트로나 인접
타운하우스식 콘도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고 1



\$69만

우드브리지
니본 랜딩 싱글홈
방4+ 화3 차고2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으~리~를 위해 글러브 다시 썼다

김보성은 ...

•생년월일: 1966년 6월 27일(58세)
 •체격: 1m75cm, 81kg
 •직업: 배우
 •최근 격투기 경기: 2016년 12월(부상 기권패)
 •취미: 복싱, 태권도
 •별명: 의리, 티프가이, 기부왕
 •대표작: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투깝스2'
 •특이사항: 시각장애 6급
 남자 연예인 최초 아녀소사이터티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가입

다음달 12일 격투기 복귀전을 치르는 배우 김보성.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김보성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시각장애인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복싱 글러브를 끼고 진지한 표정을 짓는 김보성. 김중호 기자

“으~리~(의리)!”

8년 만에 '파이터'로 복귀하는 배우 김보성(58)은 샌드백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며 이렇게 외쳤다. 찢 먹던 힘까지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마법 주문이라고 했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자 액션배우 겸 격투기 선수 금광산(48)이 미트를 들고 링에 올랐다. 김보성은 링을 한 번 훑어보더니 한 번 더 “의리”를 크게 외친 뒤 글러브를 고쳐 썼다. 혼신의 힘을 다해 휘두르는 펀치에 금광산(키 1m83cm, 몸무게 110kg)이 뒷걸음질 쳤다. 김보성의 온몸엔 비 오듯 땀이 흘렀다.

김보성을 10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만났다. 그는 다음 달 12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격투기 복귀전(77kg급·복싱틀 2분 4라운드)을 치른다. 김보성은 “시각장애인과

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경기에 나서게 됐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싶다. 나이 든 김보성이 모 든 것을 쏟아부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프고 힘든 분들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보성은 대회 후원사와 뜻을 모아 대전료에 일정 금액을 더해 기부할 예정이다. 김보성은 “지난 5월부터 거의 매일 4시간 이상 훈련하고 있다. 집에도 샌드백 2개 등 운동 기구를 설치해 틈틈이 훈련한다. 추석 연휴에도 훈련에 매진하면서 식단 조절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김보성은 1996년 흥행 영화 '투깝스2'에서 박중훈과 함께 주연을 맡으면서 액션 배우로 이미지를 굳혔다. 방송에서 “불량배들과 13대1로 붙었다”는 일화를 자주 언급해 티프가이의 대명사

가 됐다. 이후 “의리”라는 유행어로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하다. 김보성은 또 2014년 남자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터티에 가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보성이 링에 다시 오르는 건 8년 만이다. 그는 2016년 12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로드FC 특별 자선 경기에서 프로 파이터 곤도 데쓰오(일본)와 맞대결을 벌였다. 당시 그의 대전료와 입장 수입은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데 쓰였다. 격투기 데뷔전이었지만, 김보성은 상대 안면에 펀치를 몇 차례 꽂았고, 상대 선수를 쓰러뜨린 뒤 주먹을 내리꽂는 파운딩도 선보였다.

하지만 1라운드 도중 상대 펀치에 오른쪽 눈을 맞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으면서 경기를 포기했다. 더구나 그는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시각장애 6급)이다.

김보성은 “다신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던 공포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력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상대는 데쓰오다. 대신 이전처럼 종합격투기가 아닌 킥과 그라운드 기술을 뺀 복싱 룰로 싸우기로 했다. 56세 데쓰오는 여전히 현역 선수로 활약 중이다. 김보성이 다시 싸우기로 결심하자, 그의 아내는 “지난번에도 다쳐서 실명 위기에 처하지 않았느냐”며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남 돕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김보성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김보성은 “체육관 관장님과 코치, 트레이너 등 이번 대회를 도와주는 동료 5명과 함께 아내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좋은 취지의 경기라고 한참을 설득한 끝에 간신히 허락을 받아냈다”고 털어놨다.

김보성은 어렵게 성사된 경기에서 통쾌하게 승리하는 꿈을 꾸다. 그는 “내 인생 '라스트 파이트'를 앞두고 링에서 쓰러지겠다 각오로 준비 중이다. 최상의 몸 상태로 뛰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짬 음식도 줄이고, 밥도 반의반 공기만 먹고 있다. 8년 전 데쓰오에게 꺾지 못한 레프트 후크를 이번엔 기필코 성공해 쓰러뜨리겠다. 두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각장애인 여러분과 권상우, 박중훈(이상 배우), 김민중(가수) 등 동료 연예인을 경기장에 초대했다. 승리하고 난 뒤 이들과 함께 '의리'를 외치고 싶다”고 했다.

피주영 기자

1000년 세월을 이은 국보급 장인들의 인생작

“우리 갓일(갓 만드는 일)이 무형문화재(현 국가 무형유산)에 지정된 게 60년인데, 그간 돌아가신 분도 여럿이에요. 요즘은 힘들다고 배우려는 사람도 없으니 걱정입니다.”

최근 서울 덕수궁에서 만난 국가무형유산 갓 일 보유자 정준모(84)씨의 소회다. 그는 10대 시절 갓일을 시작해 60여년 외길 인생을 걸었다.

1991년 보유자로 인정된 그의 전공은 갓일 중에서도 '입자'에 해당한다. 갓 하나를 만들 땐 각각 다른 세 분야의 장인이 협업해야 하는데, 상단의 모자 부분을 만드는 총모자장, 둥근 차양 부분을 만드는 양태장, 총모자와 양태를 엮는 입자장이 있다. 이들 각자가 살아남아야 온전한 갓 만들기가 전승될 수 있다.

정씨를 비롯한 전통기술 분야 20개 종목의 보유자 29명의 종목별 '인생작' 80여점이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 모였다. 지난 3일 개막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60주년 기념 특별전시 '시간을 잇는 손길'(9월 22일까지)을 통해서다.

국가무형유산의 전통기술 부문은 총 50여개 종목을 아우르지만 이번 전시는 이 가운데서 전승 취약종목으로 분류된 20개에 초점을 둔다. 보유자가 극소수라 전승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종목들이다. 낙죽장 김기찬(69), 낙화장 김영조

(71), 선자장 김동식(81) 등 이름부터 생소한 국가무형유산들이 실제 작품 외에도 제작 도구와 제작 과정 영상을 선보인다. 매듭장 정봉섭(86) 보유자는 부친이면서 초대 매듭장이었던 정연수 보유자와 2대 보유자였던 모친 최은순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갈한 매듭 공예를 내놓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보유자 4인(나주의 셋골나이 노진남, 백동연죽장 황영보, 배첩장 김표영, 바디장 구진갑)의 유작도 함께 전시된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앤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저의 집을 방문중이다. 둘이 맥주를 마시며...)

Dan: This is a nice place.

앤: 집 좋은데 그래.

Roger: Thanks. I really like it.

로저: 고마워. 나도 맘에 들어.

Dan: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here?

앤: 여기 산지 얼마나 됐지?

Roger: Oh about three years.

로저: 글썽 한 3년 됐나.

(Looking at Dan's glass) would like a refill?
(앤의 술잔을 보면서) 좀 더 마실래?

Dan: Sure.

앤: 그러지.

Roger: There's more beer in the refrigerator. Feel free to help yourself to more.

로저: 냉장고에 맥주가 더 있어. 얼마든지 더 마셔.

Dan: Thanks. You have to come up and visit me in Seattle sometime.

feel free to (do or have something); 얼마든지 ~하세요. 맘편히 ~하세요

(Dan is visiting Roger's house in Los Angeles.

They're both drinking beer...)

기억할만한 표현

▶ a refill: (음료를) 다시 채워주기

"I want some more coffee. I'm going to get a refill."
(난 커피를 좀 더 마셔야겠어요. 가서 다시 채워올게요.)

▶ come up: (북쪽으로) 올라오다 come down (내려오다)

"You should come down and visit me in Mexico."
(저 보러 멕시코로 내려오셔야 돼요.)

▶ how about ...? : ~은 어떨까요?

"How about going to a movie tonight?" (오늘 저녁 영화보러 가는 건 어때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가로열쇠

(1) 한바탕 꿈을 꿀 때처럼 흔적도 없는 봄밤의 꿈. 인간 세상의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 (3) 폭약이 터지도록 불을 붙이는 심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5)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기체 원소.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 연료 자동차는 높은 가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7) 오래 병상에 누워 지내는 환자의 피부가 짓무르는 병 (9) 말이나 소가 나무나 돌 따위에 몸을 비비는 짓 (11) 도지불 (13) 돌을 덮어 놓은 선사 시대의 무덤 (15) 물고기나 나뭇잎을 잘 따위로 길게 엮은 것 (16) 바람에 의해 이동되는 모래먼지 (17) 소총이나 권총에서 손가락으로 당겨 총알을 발사하게 하는 장치 (19)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21) 굽이 없는 접시 모양의 넓은 질그릇. 독의 뚜껑이나 그릇으로 쓴다 (23)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 (25) 사람의 배설물. 지난날 재소를 키우는 데에 ~을 거름으로 썼다 (27) 생각, 계피를 달인 물에 설탕이나 꿀을 넣고 끓여서 곱감이나 잣을 띄워 마신다 (28) 삼하고 짓궂게 장난을 하는 아이. □□장□

세로열쇠

(1) 치료나 건강을 위하여 온몸을 드러내고 햇빛을 쬐 (2) 끝이 거의 다 닳아서 없어진 비 (3) 어린아이가 어른이 시키는 대로 머리를 좌우로 흔들는 재롱 (4) 기량이 뛰어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대표로 뽑힌 사람 (6) 바닥이 패어 물이 빙빙 돌며 흘러 나가는 곳 (8) 체면이 깎이는 일이나 아니꼬운 일을 당함 (10) 기 따위를 높이 매달아 울림 (12)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13) 말라 죽은 나무 (14) 여러 방면에 능통한 사람. 공부면 공부, 노래면 노래, 운동이면 운동, 그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이다. 팔□□□ (18)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아이 (20)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 ~으로 짠 검은 망건 (21) 어린아이의 내과적인 병을 전문적으로 진찰·치료하는 의학 분야 (22)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24) 장이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장타령을 부르던 동남아치. 장타령꾼. 일찌구나 잘 한다/폼바나 잘 한다/작년에 왔던 ~ 죽지도 않고 또 왔네 (26) 정원이나 공원에 물을 뿌어 울려 그 동적 미와 시원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시설

스도쿠

		3	7			2		
7			9		5	4		1
	1				6	8		
	7	5	3				6	
6	4			1		3		2
2		8		6	9	7	1	
4		6			2		7	3
	2						4	
	8			5	4	6	2	



자료제공 = 울드독 (www.gobook2.com)



문제가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2	9	4	5	1	7	8	3
8	4	5	3	7	9	1	2	6
3	7	1	2	6	8	9	5	4
5	1	7	6	9	4	8	3	2
2	8	3	7	1	5	6	4	9
4	9	6	8	2	3	5	7	1
7	6	8	9	3	2	4	1	5
1	3	4	5	8	6	2	9	7
9	5	2	1	4	7	3	6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 3자리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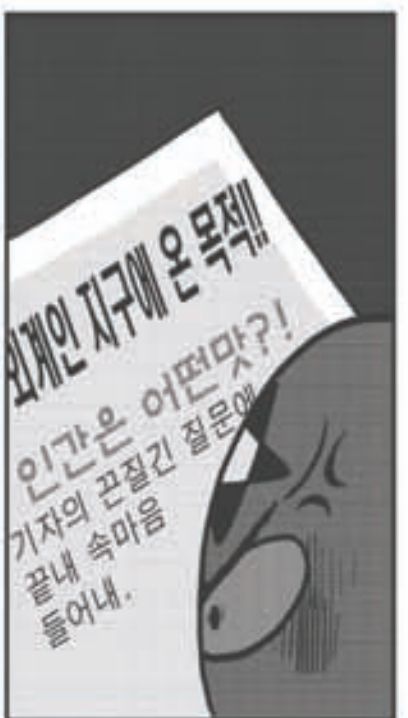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인터뷰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9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장+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독자가 행복 해진다!!

메릴랜드 지역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책임감있고 열정적인 직원을 모집합니다.

*College Park지역, MD. -Assistant 매장 매니저 -Asian Grocery 매니저 -Part Time Office 매니저 -정육부 매니저 -경험많은 Handyman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전화응대 및 간단한 업무 *간단한 자기소개서는 Email: jobsmd@outlook.com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인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콧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콧시티 장수 설령당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림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득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론델빌 샤파인턴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엘리콧시티 티운홀렌트 전체 \$1,800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화2, 1/2, 넓은 지하실, 롯데/한아름 5분 거리 410-676-9225

엘리콧시티 2015 타운하우스(3층), 학군, 교통, 상권 최고 입지. 방4 냉장고/세탁기|New모델, 240-457-267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 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욕실,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상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

▶▶LORTON 헤어제품 수입 홀세일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더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nti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애넬빌 시원한 사무실서 파. 풀타임 근무 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이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인 승원유통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선 회계사 아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중앙일보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호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우드브릿지 지구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존 H-마트 인 만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식당/델리/제과

▶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몰에서
5분거리 베이글 샵에서 함께하실 파/풀
타임(주말포함) 문자요망

▶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티븐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 Honest Grill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크보조구함(아간)
영주권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엘터레이션

▶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강,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포드 광통밴 냉장림,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 자동차 정비 매케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니, 준메케니,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 301-537-3800

No.1 플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
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홍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홍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들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에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킴친, 단독사유,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 703-489-6926

▶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l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하여 매매 가격 산정
2. 정확한 매매 상황과 매매 조건 유동성
3.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 고용

20년 경력으로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571-567-5797

콘도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어 있음). H-Mart 가까움.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H-MART 옆 콘도렌트 \$2,300 방3개 화장실 2, 유포. 전기만 별도 9월말 입주 가능 703-350-1986

▶▶애난데일 홀디포 옆 싱글홈 마스터룸 1직장다니는 여자분/유포/\$700 703-350-1986

▶▶애난데일 홀디포 옆 싱글홈 위크아웃 반지하 방 1/화1/세탁기/부엌/유포 \$1,5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교통 편리한 애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 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자 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출입문 별도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 한분. 화장실, 샤워, 인터넷. 문자요망 703-282-2862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뒷뜰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애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애난데일 한강식당뒤 개인집방 렌트 화장실/입구별도 9/1일 입주가능 2. 타이슨지역 개인집 지하방 703-395-4380

▶▶첼틀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욕아웃 인테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욕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시어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애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은 Manassas, 병원, 쇼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워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매매

▶▶엔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핑몰,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규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 무를 농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다. 교회, 식당 환영 240-796-0093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방제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세탁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 폴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화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DC 건물 | 샵핑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 Costar 선정 Top Power Broker
- Marcus & Millichap 근무경력
- Shopping Center 투자/관리 경력
- Broker Licensed DC, MD, VA



미셸신
571.243.5797

케빈신
703.395.3123

최근에 매매한 상용건물들이 실력을 증명합니다!

SOLD Popeyes \$2.5M VA. 새로지은 NNN 건물	SOLD Starbucks \$2.9M VA. NNN 건물, Drive-Thru	SOLD Chick-fil-A \$3.8M NNN 건물, Drive-Thru	SOLD Days Inn \$3.7M Days Inn, WM Co. 72 Rooms
SOLD Ruby Tuesday \$2.5M VA. NNN건물	SOLD VA 창고 \$6.8M VA Industrial Flex	SOLD MD 아파트 \$2.2M MD Silver Spring	SOLD MD 창고 \$4.1M MD Hyattsville
SOLD DC 아파트 \$1.5M DC NW. Metro 상권, 5 유닛	SOLD DC 창고 \$2.5M DC. NoMa Metro 상권	SOLD DC 샵핑센터 \$2.4M DC. Capital Hill 지역	SOLD DC 샵핑센터 \$4.5M Popeyes 테넌트, 연인컴 \$32만
SOLD DC 단독건물 \$1.2M Benning Rd. 개발지역	SOLD DC Mixed-Use \$1.5M Capital Hill지역 Retail /아파트	SOLD DC Mixed-Use \$1.5M Georgetown Retail /아파트	SOLD DC 창고 \$5.8M 56,000 S/F Warehouse

FEATURED LISTING

VA Merrifield 창고 \$1.4M Warehouse / Industrial 3,600 SF FX 최상의 위치 - Mosaic District 건물 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쇼룸, 리테일	DC 3 유닛 주상복합 \$1.8M NW Columbia Metro 상권 1층 Beer & Wine 테넌트 2층, 3층 방3개 Apartments	Starbucks 샵핑센터 \$2.2M Starbucks / Deli 테넌트 3,200 SF PA, Rockville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 건물 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식당 / Deli
---	---	--



VA OFFICE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DC OFFICE 4400 MacArthur Blvd Washington, DC 20007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구인

알짜 세탁소 에이전시

월매 28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세렌트, 좋은매물
주인은퇴, S.Riverside CA 지역
(213)249-1893 샘킴

델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 환영, 숙소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 지역
(646)229-2708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 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 상담 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율 90%

1-213-210-9720/papaaaa.com

Partial & Denture
플타임
N.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 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해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증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50roll / Box)

식당용 고급냅킨 (2Ply 3,000장)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2,000개 / Box)

한국의산 취급
중국의산 취급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213.985.4200 DOKDOSUPPLY.COM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독점 FAIRFAX 타운홈

4층 구조 엘리베이터 시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5 2013년
새로지은 럭셔리타운홈, 골프코스 전경

\$1,335,0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독점 ANNANDALE 콘도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375,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